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943-9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F. 063-244-1043

# The JeonBuk Times

조기문법무사 해솔학행정사 법무사/행정사 조 기 문 (우)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8중 805호(만성등, 오케이터워기) Mobile 010-2053-8741 Tel. 063-223-8741

2025년 10월 22일(수) 제 3191호

# 무주읍, UN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영예

#### 65개국중40곳선정…국내2곳 청정자연·전통·축제등높은평가 관광브랜드강화·외국인유입기대 무주군"지방소멸극복모범될것"

무주군 무주읍이 유엔 세계관광기구 (UN Tourism, United Nations World Tourism organization)에서 주관하 는 '제5회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Best Tourism Villages)'에 최종 선정되는 쾌 거를 이뤘다.

올해 1월 '제5회 세계 최우수 관광마 을' 공모에 도전장을 냈던 무주군 무주 읍은 2월에 국내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 후 한국관광공사로부터 현장답사 및 후 보 마을 컨설팅을 받았으며 이를 바탕 으로 본선 공모에 출품해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의 영예를 안았다.

무주군은 21일 무주군청 광장에서 황 인홍 무주군수,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 장, 윤정훈 도의원을 비롯한 기관·사회 단체장과 군민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 데 '군민 축하 한마당' 행사(주관: 무주 군 관광협의회)를 열어 기쁨을 함께 나

주민들은 "무주가 유엔에서 인정하는 관광마을이 됐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이를 계기로 세계인들의 발길이 끊임없 이 이어지기를 바란다"라며 "세계 최우 수 관광지 주민다운 면모로 손님들을 맞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농악대 길놀이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 서 황인홍 군수는 지난 17일 중국 후저 우시에서 수상한 '관광마을 상패'를 무 주읍 주민들을 대표해 신운주 무주읍 이장협의회장에게 전달했다.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이름을 올 린 무주군 무주읍은 앞으로 유엔 세계 관광기구(UN Tourism) 공식 로고를 사 용할 수 있게 되며, 홍보 페이지 제작도 가능해져 인지도 향상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 유입 효과 등 관광 경쟁력이 한 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읍의 아름다 활·문화자원도 주목을 받았다. 운 자연과 역사·문화자원, 친환경 생태 관광의 우수성, 그리고 주민 여러분의 애향심이 자연특별시 무주를 세계관광



UN Tourism 최우수 관광마을 무주군 무주읍이 유엔 세계관광기구 '최우수 관광마을'에 최종 선정돼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무 무주읍민 '축하 한마당' 주군민들이 축하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청이 인정하는 최우수 관광마을로 만들 었다"라고 강조하며 "세계적인 관광도 시의 대열에 선 만큼 무주다운 관광 모 델을 구축해 지역 관광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한편,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모 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은 세계 각지의 숨겨진 관광지 중 지속 가능한 관광과 지역사회 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마을로, 무주군 무주읍은 △향로산 자연휴양림과 남대천, 반딧불이 보호구 역 등의 청정 자연환경, △한풍루, 무주 향교 등 전통문화 자원, △무주반딧불축 제와 무주산골영화제 등 지역 대표 관광 콘텐츠를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 하는 힐링 여행 마을, 미래 세대와 함께 누리는 아름다운 환경 도시'를 지향한다

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주민 삶의 기반이 되는 무주 마실 길(금강마실길, 금강맘새김길), 소이나 루공원, 지남공원 등의 자연 자원은 물 론, 공립 최북미술관과 김환태문학관, 복 합문화시설인 무주상상반디숲 등의 생

현재 무주군 무주읍에서는 남대천 주 변 야간경관 조성 사업을 비롯해 태권 브이랜드, 생태모험공원 등 다양한 관광 개발 사업이 진행 중으로, 천혜의 자연 자원과 연계한 새로운 여행코스 탄생에 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무주군은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선 정을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 앞 으로 △유엔세계관광기구 주관 국제행 사 유치, △최우수 관광마을 관련 상품 상설화, △관광 및 지역개발 관련 국내 외 공모사업 참여 등 연계 사업 발굴 및 대외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제5회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는 세계 65개국 207개 신청마을 중 총 40여 곳이 선정됐으며, 국내에서는 '무 주군 무주읍'과 '양평군 양수리' 2곳이 선정됐다.

우리나라의 역대 세계 최우수 관광마 을로는 △전북 고창 운곡습지 및 고인돌 (2021), △전남 신안 퍼플섬(2021), △경 남 하동 평사리 섬진강마을(2022), △제 주 세화마을·동백마을(2023), △전남 화 순 고인돌 모산마을(2023) 등이 있다.

/무주=최의호 기자

# 민주당 전북도당 "순창군 기본소득 시범 선정 환영"

#### "李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첫걸음" 전북형기본소득확산공론화속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20일 논평 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농 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순창군 등 전국 7개 군이 선정됐다"며 "이번 기본 소득 사업 시범사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농촌 소득안정과 지역순환경 제를 실현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 이다"고 순창군민과 순창군에 축하를

또 "도내 소멸 위기에 직면한 11개 지 자체별 기본소득 도입과 확산을 위한 공론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 기 대된다"며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 치도당은 전남 신안, 경북 양양 사례처 럼 재생에너지를 통한 기본소득 등 이 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부합하면서도 전북 특성에 맞춘 전북형 기본소득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의 정책, 예산을 뒷받 침하고 당력을 모아 나아가겠다"고 덧 붙였다. /장정철 기자

# 전북, 이차전지 전주기 지원 강화 새만금 'K-배터리' 중심지로

#### 소재·재활용투자·R&D전폭지원 특화단지 24개사 9조 3천억 투자 고도분석·재자원화 센터 구축 대학·특성화고 협력 인력 양성

전북도가 이차전지 소재·재활용 분 야 핵심 거점으로 기업의 기술혁신과 시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본격 지원에 나선다.

21일 도에 따르면, 미국의 통상환경 변화와 중국의 저가 공세로 국내 이차 전지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 데, K-배터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적 뒷받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주 요 광물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만큼, 소 재 공급망 내재화와 신소재 개발, 재자 원화가 산업 지속가능성 확보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투자유치부터 기 술 인프라 조성,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 성,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까지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23년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 정 이후 새만금은 배터리 산업의 전략 적 거점으로 부상했다. 현재 특화단지 내 24개 기업이 총 9조 3,000억 원을 투 자했으며, LS L&F, LS MnM 등 대기업 과 SK온, 포스코퓨처엠의 합작법인 및 자회사가 포진해 있다.

에코앤드림, 이디엘, 퓨처그라프 등 주요 소재 기업과 국내 최대 폐배터리 재활용기업 성일하이텍 등이 가동 중 이거나 입주 예정이다. 이 가운데 지난 달 전구체 생산공장을 준공한 LS L&F 배터리솔루션은 향후 1조 원 이상을 투 자하고, 750여 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다.

도는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 터'와 '디지털트윈기반 사용후 배터리 재자원화 최적화센터' 구축을 추진 중

고도분석센터는 2027년 완공 목표로 배터리 핵심 소재의 특성 변화를 실시 간 분석하는 첨단 시설이며, 최적화센 터는 디지털 트윈 기술로 재활용 공정 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혁신 연구 기

또 지난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 역기술혁신허브 육성 지원사업'에 선 정돼 5년간 총사업비 290억원(국비 200)을 확보했다. 10월 출범한 '친환경· 고성능 이차전지 핵심소재 기술혁신허 브 협의체'를 통해 소재부터 리사이클 링까지 전주기 맞춤형 R&D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대학 및 특성화고와 협력해 전 문 인력 양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현재 전북대, 군산대 등 10개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운영 중이며, 전북대는 2026년 부터 이차전지 전공학과를 신설해 연 간 30명을 배출한다.

도내 5개 특성화고에서도 12개 관련 학과를 운영하며, 이리공고는 마이스 터고 전환을 준비 중이다. '배터리 아카 데미'를 통해 연간 120명, '첨단산업 인 재양성 부트캠프'로 연간 100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체계적인 인재 공 급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2023년 9월 구성된 '이차전지 특화단 지 추진단'은 기업의 안정적 입주와 정 착을 돕고,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규 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차전지 소 재부품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4개 기 업의 기술 사업화를, '이차전지 기업 역 량강화 지원사업'으로 9개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 중이다.

전북도는 지난 3월 '인터배터리 2025', 9월 '배터리 코리아 2025'에 참 여해 새만금의 투자 매력을 홍보했다. 오는 23~24일에는 군산새만금컨벤션 센터에서 '2025 새만금 이차전지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지속가능한 모 빌리티와 에너지전환을 위한 배터리 혁신'을 주제로 7개국 20명의 연사가 참여해 글로벌 시장 동향과 차세대 기 술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원식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 장은 이에 대해 "새만금을 중심으로 산 업 생태계 조성과 기업 지원을 위한 정 책 기반을 꾸준히 강화해 전북이 대한 민국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 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

/장정철 기자



# 전북 스마트공장 기업, 서울 비즈엑스포서 판로 확대

14개사 '스마트비즈엑스포' 참가 삼성전자·중기중앙회 등 주관 수출상담·라이브커머스 등 진행 전북형스마트제조혁신모델주목

전북도는 24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 스에서 열리는 '2025 스마트비즈엑스 사가 참여했다. 포'에 도내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14개 사가 참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삼성전 자・중소기업중앙회・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 규 모의 스마트공장 상생협력 박람회로, 전 국 80여 개 구축기업이 홍보관을 마련 했다. 올해는 삼성전자의 스마트공장 지 원사업 10주년을 기념해 특별관 및 전 시관 운영, 구매상담회, 라이브커머스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의 국내

외 판로 개척과 홍보 기회를 확대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개막식에 이어 전북 도 기업관을 둘러보며 지역 내 기업들 의 기술혁신 성과와 수출 실적을 살폈 다. 도내 14개 기업은 제품 홍보와 상 담·판매를 위한 부스를 열었으며, 구매 상담회 27개사, 라이브커머스 방송 4개

또 수출 상담 등을 위해 국내외 바이 어 100여 명과 현장 미팅을 진행하는 등 판로 확대에 성과를 올렸다.

도는 삼성전자와 협력해 전국 최초 민 관 협력형 혁신모델인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다. AI· 데이터 기반의 공정혁신과 맞춤형 현장 멘토링을 실시하며, 지역 주도의 제조혁 신 표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스마트비 북 기업들이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전북도는 24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5 스마트비즈엑스포'에 도내 스마 트공장 도입기업 14개사가 참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즈엑스포는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 전국적 판로를 넓히고 더 큰 성장의 발 핵심 행사다"며 "이번 참여를 계기로 전

판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 2026년 지방선거승리!

윤준병 의원은 2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 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사진=윤준병의원실>

#### 윤준병 의원,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출사표'

정부성공·지방선거 승리목표 행정·정치 융합 리더십 내세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회 간사)은 21일 이재명 정부의 성 공·2026년 지방선거 승리·전북특별 자치도 발전을 이끌 적임자를 자처 하며,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 도당 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윤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 기자 회견에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성 공, 2026년 지방선거 승리, 전북특별 자치도 발전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대동세상(大同世上)을 염원했던 동 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 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을 이 재명 정부 성공의 선봉장, 지방선거 승리의 요람, 그리고 전북 대도약의

윤 의원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이끌 수 있는 본인의 강점으 로 '행정 - 정치 융합 리더십'을 내 세웠다. 윤 의원은 서울시 행정제1 부시장과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 과 위원 경험을 토대로 전북의 현안 을 국정운영에 선도적으로 반영하 여 성과로 구현해 낼 수 있는 역량 이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시스템 공천의 설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계자'로서 2026 년 지방선거의 압승

을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에서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장으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로서 확고한 원칙과 기준으로 개혁 공천을 단행하여 무소속 강세 지역 에서도 승리를 거둔 경험을 제시했 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오직 전북도 민을 위한 헌신과 정책 실행 능력을 기준으로 인재를 선발하고, 참신함 과 도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정 한 경선을 통해 이재명 정부 성공을 현장에서 뒷받침할 유능한 지방 리 더들을 전면에 내세우겠다고 약속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특별자치 윤 의원은 "억강부약(抑強扶弱)과 도로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룰 기회 를 현실적인 성과로 연결하려면 실 질적인 권한과 예산을 가져올 수 있 는 행정 경륜과 정치적 파워가 필수 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의 시 작과 끝을 아는 자신이 전북 발전을 강력한 엔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 위한 가장 강력한 추진 엔진 역할을 하고, '당원 주권 정당' 을 바로 세우 겠다고 천명했다.

윤준병 의원은 "저 윤준병은 이재 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견인하 고, 2026년 지방선거의 압승을 이끌 어내며, 전북특별자치도의 대도약 을 실현할 가장 준비된 더불어민주 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 후보" 라며 "전북특별자치도의 대도약을 최일선에서 진두지휘하여 책임지고

/김은지 기자

### 전북도, 새만금 투자설명회로 관광·산업 유치 '속도'

서울서 새만금 투자설명회 개최 신항만·국제공항 등 접근성 강조 관광·산업 복합 잠재력 적극 홍보 참석자 "정부 뒷받침 참여 검토"

전 가능성을 알리며 투자유치에 속도를 낸다.

전북도는 21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 서 관광·산업 분야 투자자를 대상으로 '새만금 관광·산업 투자설명회'를 개최

이날 설명회에는 관광개발업체, 건설 사, 컨설팅사, 회계법인 등 20여 개 기업 이 참석했으며, 새만금개발청, 김제시, 부안군, 새만금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등 관계기관도 함께 자리해 투자유치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도는 오는 11월 개통 예정인 새만 금~전주 고속도로를 비롯해 2026년 개 항을 앞둔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 국 제공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등을 소개하 며 새만금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 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새 정부의 전북도가 새만금의 달라진 모습과 발 정책 기조에 따라 투자 환경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음을 부각하며 관광·산업 복합 개발의 잠재력을 설명했다.

> 새만금개발청은 신항만 개항 시기에 맞춰 추진 중인 크루즈 연계 관광사업 을 소개하며, 대규모 해양관광 중심지로 서의 성장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어 새 만금개발공사는 연말 분양을 앞둔 스마 트 수변도시 선도지구 분양계획을 발표 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 참석 기업 관계자들은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새만금의 투자 가능성이 높



전북도는 21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관광·산업 분야 투자자를 대상으로 '새만금 관광 산업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전북도>

비스로 충족되

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

원활히 뒷받침된다면 적극적인 참여를 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에 맞춰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졌다"며 "정부의 지원과 기반시설이 있는만큼 논의된 투자자들의 의견을 사

다"며, "새만금이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 도 관계자는 "새만금은 기업들의 요 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를 검토

/장정철 기자

### 전북도의회,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주영은 의원 대표 발의 노인·장애인 통합 돌봄체계 구축 보건 · 요양 · 생활지원 연계 근거 포함 27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 예정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 특별자치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

이번 조례는 내년 3월 본격적으로 시 립·시행하도록 명시했다. 행될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 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노쇠, 장애, 질

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 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통합 · 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해 제정됐

본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 65 이 제422회 임시회에 대표발의한 전북 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중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 통합 지원 전달체계의 조직 · 운영 및 재원 조달 등을 포함한 지역계획을 매년 수

또 ▲ 보건의료, 건강관리 및 예방, 장 기요양, 일상생활돌봄, 가족 지원 사업 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 외에도 다제약물관리 및 기존 돌봄 서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 관련 기관들의 연계·협력 스 발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 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의 설 다. 치 근거를 마련했으며, ▲ 통합돌봄 사 업 추진에 기여한 개인이나 법인 등에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국주영은 의원은 돌봄통합지원법의 전국 시행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재까지 전 비스 등을 지 북자치도는 관련 조례조차 없던 상황이 원하도록 했고, 라고 지적한 뒤 "본 조례 제정에 따라 고령화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 업을 전담할 수 을 겪는 도민들이 거주지에서 존엄한 있는 전담조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의 설치 근거를 기대하고, 관련 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 진을 위해 전북자치도의 적극적인 서비

> 한편 금번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 /장정철 기자

#### 전북도, 가을철 산불방지 총력 대응 체제 가동

전북특별자치도는 20일부터 12월 15 일까지 57일간을 '가을철 산불조심기 간'으로 정하고, 도·시군·읍면동 258개 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본격 적인 산불 예방 및 초동 대응에 나섰다. 올해 가을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 위험이 높 아, 전북도는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평 일 09시~21시, 주말·공휴일 10시~20시 까지 상황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10년간 전북지역 가을철 산불은 총 23건, 피해 면적 7.39ha로, 65%가 등

산객·약초 채취자의 실화로 발생했다.

전북도는 산불취약지 1만 4천ha와 103개 등산로를 중심으로 입산 통제와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산불감시원·진 화대 1,500명을 현장에 배치한다.

또 AI 기반 산불예방 ICT 플랫폼을 산불상황실에 구축하고 11월 초 시범 운영해 CCTV 연기·불꽃을 자동 탐지 하며, 임차 헬기 3대와 연계한 초동 진 화 시스템도 가동된다. 산불조심 기간 위반 시 과태료·형사처벌이 적용된다.

/김은지 기자



사회

"비응급환자 구급차 이용 자제해주세요!"

"자발적인 시민 협조 중요"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덕규)는

119구급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진

정한 생명존중 문화 정착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 자제를

시민들에게 당부한다고 21일 밝혔

구급대원은 현행법상 비응급환

자의 경우 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고 내용만으로 응

급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

워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0조에 따르면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 △

단순 감기(38℃이상의 고열 또는

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단

순 타박상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만성 질환자의 정기

이처럼 비응급환자 신고가 반복

될 경우, 소방력의 공백이 발생해

응급환자 이송이 지연되는 등 골

든타임 확보에 심각한 차질이 빚

박덕규 전주완산소방서장은 "비

응급 신고로 인한 출동은 응급환

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신속

히 구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신고 문화

/정소민 기자

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어질 수 있다.

검진 및 입원목적 이송 등이다.

# 한복의 도시 전주! '비단夜'으로 가을밤 밝히다

#### 21일 전라감영서 한복 입고 한복 문화 축제 서막 열어

한국적인 도시 전주에서 '2025 한복문 했다. 화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한복의 날' 기 념행사가 펼쳐졌다.

전주시는 21일 전라감영에서 우범기 며 축제 분위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전주시장과 내빈, 외국인 참가자, 일반 시민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한복문화주간 개막식'이자 '한복의 날' 기 념행사인 '비단夜(야)'를 성황리에 개최

복을 입고 전통놀이와 체험 부스를 즐기 은 이들에게 특별한 순간을 선사했다.

특히 이날 행사 현장에서는 선착순 과 멋이 살아 숨 쉬는 도시로, 이번 '한복 200명을 대상으로 무료 한복 대여가 제 의 날' 행사를 통해 많은 분이 한복문화 공돼 많은 관람객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의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어 의미있는

그 결과 전라감영 일원은 고운 한복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졌으며, 선화당 이날 행사는 시민과 외국인이 함께 한 과 어우러진 한복등(燈) 세레모니는 많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는 한복의 전통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26일까지 한국전 통문화전당 일대에서 이어질 다채로운 한복문화주간 프로그램에도 많은 관심 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 구직자 대상 'AI 취업' 코칭 나서

#### 구직전략기술 특강 진행

전주시가 구직자들에게 급변하는 채용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AI시대에 걸맞 은 취업전략을 공유했다.

서 '2025년 하반기 구직전략기술 특강'을 열고, AI를 활용한 자기소개서 작성법과 개서를 실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도움 연령·성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활용 법을 안내했다.

구직자들이 효율적으로 역량을 표현하 량 진단 등 구직 전 과정을 단계별로 알

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날 특강에서는 2차 베이비부머 도했다. 세대 등 중·장년층 구직자들이 AI 도구 를 활용해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시는 21일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의 자기소개서를 직접 작성해 보는 과정 을 통해 지식·기술·태도 중심의 자기소

또 참석자들은 △'고용24' 플랫폼의 인 이번 특강은 채용 트렌드 변화에 따라 중 절차 △직종 탐색 △지원서 작성 △역

분석·표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기 현장 밀착형 교육 프로그램인 '구직전략

이와 함께 이날 현장에서는 전주시일 자리지원센터와 전북중장년내일센터 등 주요 일자리 유관기관의 지원 사업과 청 년·여성·중장년·노인 등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함께 소개돼 참여자들이 다 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반기 두 차례에 걸쳐 구직자들이 자신감

아보며, 개인의 강점을 데이터 기반으로 을 가지고 구직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기술 특강'을 통해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도와 왔다.

김혜숙 전주시 일자리정책과장은 "AI 활용 능력과 NCS 기반 자기소개서 작성 역량은 중·장년층에게도 이제 선택이 아 닌 필수"라며 "전주시는 시민들이 시대 의 흐름에 맞춰 취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AI와 데이터 기반의 실전형 취업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매년 상·하 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 기업 성장 이끄는 지역창업초기펀드 성과 공유

#### 전주형 콘텐츠펀드 '지역창업초기펀드' 투자 성과 투자유치 설명회 열려

전주시는 '전주시 지역창업초기펀드 (콘텐츠산업) 성과공유회 및 투자유치 설명회'를 21일 서울 팁스타운 유니온스 퀘어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시는 지난해 문화콘 텐츠 기업 투자를 위해 출자에 참여한 '지역창업초기펀드' 운용사 ㈜크립톤(대 표 양경준)와 함께 주요 성과를 공유했 다.

시는 이날 최근 개정된 '전주시 투자유 치 촉진조례'를 통해 확대된 지원 인센티 브를 소개하며, 유망 콘텐츠기업이 안심 하고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조 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이끌어 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추진 중인 자시례 공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 포함한 총 5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주요 사업을 안내하며, 글로벌 영화영상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관련 콘텐츠 기업

이어 △전주형 콘텐츠펀드 운용성과

이와 관련 '지역창업초기펀드'는 지난 해 8월 모태펀드 출자사업 공모를 통해 30억원의 모태자금을 확보한 후 전주시 또 '2034 전주 영화·영상산업 비전'과 발표 ΔLIPS·TIPS 프로그램 소개 및 투 출자금 10억원과 민간 투자자 10억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펀드는 3년 이하 문화콘텐츠 분야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목 표로 운용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9개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뤄졌다.

이 중 전주시 소재 4개 기업이 총 11억 4000만원 투자지원을 확보했다.

시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기업친화 적 투자환경과 문화콘텐츠 산업 인프라 를 갖춘 '투자하기 좋은 도시 전주'의 위 상을 강화하고, 유망 콘텐츠기업의 수도 권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

전주시 경제산업국 관계자는 "전주형 콘텐츠펀드는 지역 기업의 투자 기반을 강화하고 창업 초기기업의 성장 사다리 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더 많은 콘텐츠 기 업이 전주를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소민 기자

# 전북경찰청,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진행

'80년, 국민의 안전! 새로운 시작!'

전북경찰청(치안감 김철문)은 21일 '제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한기만 전북경찰청 경우회장, 김원요 경찰발전협의회장을 비롯한 협력단체와 소속직원 200명이 참석 했다.

이번 경찰의날 행사는 '경찰 80년, 국민의 안전! 새로운 시작!'을 슬로건 으로 홍보동영상 시청, 정부포상 및 감사장 수여, 대통령 축사 대독 등 진

식전행사로 1958년 순직한 장해준 경사를 비롯한 순직경찰 115명을 기 리고 있는 전북경찰청 추모의벽을 찾 아 헌화와 분향을 하며 순직 선배경 찰에 대한 넋을 기렸다.

김철문 청장은 제80주년 경찰의날 행사에서 '그동안 묵묵히 맡은 바 직 무를 충실하게 수행한 직원들의 노고 에 감사하고, 경청과 응답의 자세로 도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는 든든한 전북경찰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정소민 기자

### 제26회 전주시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 문화행사 열려

#### 21일 전북장애인복지관 체육관서 체육경기·노래자랑 등화합의 시간

전주지역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한마음 행사가 열렸다.

'제26회 전주시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 회 및 문화행사'가 전주지역 장애인과 비 장애인 등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1 일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 체육관 에서 열렸다.

전주시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는 장 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체육경기를 통 해 친목을 도모하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 를 높이며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 기 위해 해마다 열리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상호 존중과 협동심 을 키울 수 있는 투호, 훌라후프, 신발 양 궁, 공 많이 넣기, 고리걸기, 전자다트 등 다양한 종목별 체육경기가 펼쳐졌다.



'제26회 전주시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및 문화행사'가 전주지역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 체육관에서 열렸다

이어 장애인복지를 위해 헌신한 유공

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 등의 기념식과 더 불어 문화 공연과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돼 참가자와 방문 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연 출했다.

이영재 전주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회 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 며 소통하는 이 자리가 모두에게 의미 있 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 앞으로도 차별과 편견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 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는 다양성 과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시민 의 식 개선과 체육 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 다.

/정소민 기자

#### 덕진경찰서, 민·관 협력 범죄 취약지역 개선

최근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 성을 위해 추진한 '범죄예방 환경개 선 사업'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범죄 발생 우려가 높았

던 금암동 일대 원룸 밀집 지역을 대 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경찰, 지자체,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한 민·관 협업 모델로 진행됐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로고젝터, 솔

전주 덕진경찰서(서장 김인병)는 라표지병, 안심 반사경 설치 등이 포 함됐다.

> 덕진경찰서는 지난 수개월간 지역 내 범죄 발생 현황 및 주민 의견을 수 렴했다.

> 덕진경찰서는 향후에도 유관기관 과 협력해 범죄취약지역을 지속적으 로 발굴하고, 맞춤형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 /정소민 기자

### 전주시, 농업인대학 21기 수료식 개최

#### 고추기술 마스터과정 오이·호박 일억농부과정 수료식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는 21일 '제21기 전주시 농업인대학' 수료식 을 개최하고 총 56명의 수료생에게 수료 및 안전 생산 기술과 병해충 관리, 유통· 증을 전달했다.

행된 이번 농업인대학은 '고추기술 마스 을 얻었다. 터과정'과 '오이·호박 일억농부과정' 2개

과정이 함께 운영됐다.

올해 농업인대학은 각각 15회, 총 70시 간에 걸쳐 이론과 현장 교육을 병행한 전 문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고추·오이·호 박 등 지역 특화작목에 대한 고품질 재배 판로 개척, 선진지 벤치마킹 등 실질적인 지난 3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 진 내용으로 구성되어 수강생들의 큰 호응

수료식에 참석한 한 농업인은 "재배농 밝혔다.

가 농장에서 진행된 현장 컨설팅 덕분에 작물 재배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며 "앞으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고소득 농업을 실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 하며 지역농업의 산실이 되고 있다. 역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인이 양성됐 다"며 "앞으로도 기술과 경험을 갖춘 전 문경영인의 마인드를 통해 우리 지역농 업의 선두 주자로 우뚝 서길 바란다"고 위한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지난 2005년 시작된 전주시 농업인대 학은 현재까지 전주명품복숭아, 딸기, 농 산물 가공, 친환경농업, 채소과정, 포도과 정 등 20개 과정의 졸업생 682명을 배출

시는 앞으로도 농업인대학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 경쟁 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정소민 기자

#### 군산항서 선박 내 용접작업 중 폭발사고 발생

군산해양경찰서는 21일 오전 10시 56분께 전북 군산시 소룡동 군산항 6 부두 앞 해상에 정박 중이던 2,627t급 다. 준설선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2명 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후송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사고는 선박에서 용접 작업 도중 용 접용 가스통이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 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각각 50대, 는 것으로 알려졌다. 60대 남성)이 전신화상을 입어 해경

은 소방청 헬기를 이용해 환자 2명을 화상 전문 병원으로 이송할 계획이

또, 사고 선박에 추가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실시하 는 한편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가스통 폭발이 발생한 선박에 는 추가 화재 피해 및 해양오염은 없

/지송길 기자

#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준비 박차

#### 특별 기획 전시·참여형 프로그램 확대…식품 산업 역량 강화 주력

올해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발 효, K-FOOD의 미래'라는 슬로건을 바 탕으로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5일간,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세 계 20개국 350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바이오진흥원은 지난해 행사의 미 비즈니스 컨설팅을 운영할 예정이다. 비점을 보완하고 참가자 만족도 제고 를 위한 전시 콘텐츠 강화 및 프로그 해 지역 특화 클러스터와 전북특별자 램 다양화, B2B/B2C 통합 마케팅 지 치도 우수상품, 6차산업상품 및 간편

원 등을 통해 전북 농식품산업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성과 극대화를 위해 행 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시 분야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농 업기술원,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대 한투자무역진흥공사,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 등 농식품 및 수출 전문 기관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식품산 업 트렌드와 바이어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시장맞춤형 제품을 선보이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장 애로상담 및

또한, 기존의 전통발효식품을 비롯

편의식 제품 등 전략 특화 상품 콘텐 츠를 구성해 현장 거래 실적 및 해외 시장 진출 성과가 기대되고 있으며, 특 별전시로 발효식품의 과거와 현재, 미 래를 집중 조명하고 전북식품명인대 전, 전북지역향토음식홍보전, 올해의 건배주 전시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 일 계획이다.

상공인협동조합 공동판매전을 운영해 중소식품 기업들의 판로개척과 매출 확대를 위한 상생 마케팅을 수행하고, 해조류와 어류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 의 수산가공 제품과 젓갈 제품들에 이 가 풍성한 행사로 구성할 예정이다. 르기까지 풍성한 제품들이 소비자들

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한편, 해외기업관에서는 이탈리아, 호주, 스페인, 조지아, 일본 등 다양한 나라에서 총 12개국 34개사가 참가해 다채롭고 이색적인 상품을 관람객들 에 선보일 계획이다.

부대행사로는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 이고 다양한 계층의 참여 확산을 유도 거기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연계한 소 하기 위해 지역 농식품을 활용한 식문 화 체험 프로그램과 어린이 뮤지컬, 타 악 퍼레이드, VR 체험을 비롯해 전통 놀이, 현장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 을 운영해 볼거리·즐길거리·먹을거리

/정소민 기자

# '전북 벤처투자 도내기업 밸류업 라운드' 열어

#### 벤처기업 밸류업·적기투자 위한 전략적 IR무대 마련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전북창경) 는 21일 익산 웨스턴라이프호텔에서 '2025년 전북 벤처투자 라운드 스케일 업, 도내기업 밸류업 라운드'를 성황리 에 개최했다.

이전을 진행 중인 유망 스타트업의 성 장을 주제로, 전북 벤처펀드 컨소시엄 운용사 및 유관기관이 직접 참여해 기 업의 성장·투자·정착을 연계하는 프로 그램으로 구성됐다.

금번 행사는 우수사례 발표, 유망기 업 IR 피칭, 투자사 네트워킹 등의 프로 그램으로 진행됐으며,우수사례 발표에 서는 올해 10억원의 벤처투자를 유치한 소재기업 '엘오티아이'와 중기부 스케일 업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 익산 국가식 품클러스터로 이전 진행 중인 세포 배 양육 '팡세'가 투자유치와 성장을 이뤄 낸 성공사례를 공유했으며

IR세션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차 (茶) 솔루션'메디프레소'△배터리 진 단 솔루션 '모나' △반도체 성분검사 장 비 제조 '아이에스피' △나노다이아몬 드 '에스더블유케미컬즈' △친환경 메탄 저감사료 제조솔루션 '엔텍바이오에스' △이차전지 전해질 및 첨가제'이피캠텍' △방사성의약품'카이바이오텍' △이차 전지 양극재용 추출제'코솔러스' △절 이번 행사는 도내에서 성장 중이거나 대혐기성 생균치료제'헬스바이옴'총 9 개사가 IR피칭을 통해 투자유치 기회를

> 전북자치도는 지금까지 벤처펀드 25 개, 누적 결성액 9,171억 원을 달성해 정 책출자와 민간자금이 결합된 투자모델 을 구축 중이다. 올해는 약 1조원 규모 의 벤처펀드를 완성해, 초기-후속투자-회수-상장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마련 중이며 현재까지 95건의 전북 벤 처펀드 794억원, 공동투자 1,436억의 총 2,230억원의 벤처투자가 집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대중 전북특별 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21일 익산 웨스턴라이프호텔에서 '2025년 전북 벤처투자 라운드 스케일업, 도내기업 밸류업 라운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장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도 도는 향후 11월 한국산업은행 연계 라 전정신이 바로 전북경제의 미래를 밝 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라고 하면서, "혁신의 씨앗인 스타트업의 자금난 극 복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 인프라 확충 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

운드, 12월 통합 컨소시엄 라운드 등 '2025 전북 벤처투자 라운드 스케일업' 시리즈를 이어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민간주도형 벤처투자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체크카드 출시

#### 전북지방우정청 진안우체국 유기적 협력

형 지역화폐인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을 오늘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진안고원 행복상

넷뱅킹 및 우체국뱅킹·chak어플에서 공된다. 발급이 가능하며, 진안군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으로, 충전금액이 소진되 전북지방우정청은 진안군 체크카드 면 계좌 잔액 범위 내에서 전국 어디

개인별 월 구매 한도는 50만원이며 품권'은 진안군 내 우체국창구, 인터 충전 시 상시 10%의 할인 혜택이 제

에 이끌고 있다.

서나 일반 체크카드처럼 사용이 가능 기념해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신규 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가입자에게 선착순으로 사은품을 증 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병무 진안우체국 국장은 "진안고

원 행복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촉 각종 캐시백과 할인 혜택을 통해 고 진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 모두 객 편의성과 지역 소비 활성화를 동시 가 함께 특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군민들의 많은 관심 진안우체국에서는 체크카드 출시를 과 이용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체 와의 유기적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 전북은행, 전주시에 'JB희망의 공부방' 오픈

#### 208호·209호 열어 발달장아 아동 교육 제공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 은 전주시 다운지역아동센터와 홍산지 역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 208호, 제209호' 오픈식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다운지역아동센터는 지난 2006년 개 소한 전주시 유일의 장애전담 센터로 서 15개 학교에 재학 중인 19세 미만 학령기의 발달장애 아동들에게 교육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북은행은 이 곳의 아동들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 도록 도배, 장판, 화장실 도어, 슬라이딩 도어 등을 지원했다.

또 지난 2021년 보조금 미지원 기관 으로 개소한 홍산지역아동센터는 아동 들의 학습에 필요한 책상, 의자 등을 중 고제품으로 구매해 사용했으나, 노후화 된 물품들의 교체시기가 도래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도배, 책상, 의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전주시 다운지역아동센터와 홍산지역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208호, 제209호' 오픈식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식 싱크대 등을 지원했다.

오픈식에는 전북자치도의회 이병철 의원, 전주시의회 이보순 의원, 이성국 의원, 정섬길 의원, 다운지역아동센터 김정옥 센터장, 홍산지역아동센터 김수 정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오현권 부행장은 "도움이 필요한 지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자, 테이블 및 의자, 붙박이 정리함, 이 역아동센터들을 자체적으로 발굴해 지

원 사업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많은 분들의 관심과 추천으로 이번 환 경개선이 이뤄지게 돼 큰 보람을 느낀 다"며 "앞으로도 지역은행으로서 어려 울수록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현

/정혜민 기자

#### 농진청, 양파육묘 방식 선택폭 넓혀…육묘지침서 개발예방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양파 육 묘 방식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10월 21일 경남 함양에서 노지 육묘 현장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평가회는 토양 전염병과 강풍, 강우, 습기 피해로 인한 모종 손실 등 양파 플러그묘를 노지에서 생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

연구진은 함양군 양파 플러그묘 생 산 실증 재배지에 토양 전염병 예방 소독 방법과 균일한 모종 생산을 위 한 모종판 올리는 방법(완충재ㆍ진압 기 활용), 강풍에 안전한 피복재를 적 용하고, 육묘상 두둑은 폭 1m, 높이 25~30cm로 조성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강우 등 기상과 병 해충에 의한 모종 손실이 없음을 확인 했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기계 정식용 육묘 지침서를 개발 할 예정이다.

또 모종 생산 기술 홍보와 교육을 강 화해 양파 노지 육묘를 지원해 나갈 계 획이다.

/정혜민 기자

#### 국민 참여 '예산절감 아이디어' 공모

11월 14일까지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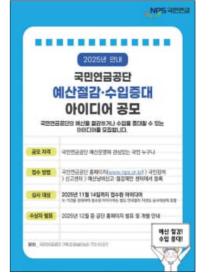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 해 11월 14일까지 '예산절감 아이디 어'를 공모한다.

공단 예산운영에 관심이 있는 국 민 누구나 공단 누리집(www.nps. or.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공단은 접수한 아이디어를 실행가 능성과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심 사해 12월 중 누리집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수 아이디어 제 안자에게는 포상금으로 온누리상품 권을 지급한다.

공단은 2005년부터 임직원을 대 상으로 '예산절감 사례'를 공모해 왔 으며, 2020년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 으로 '예산절감 아이디어'를 공모하 고 있다.

최근 3년간 총 218건의 아이디어 다. 가 제안됐으며, 이 가운데 49건을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해 포상했다.

김태현 이사장은 "공단은 투명한 예산집행과 비용절감을 위해 지속 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공단 예 산운영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 인 의견 개진을 부탁드린다"고 밝혔

/정혜민 기자

#### 농기원, 안전월동 위한 맥류 적기 파종 당부

#### "적기 파종·월동 대비 배수로 정비 등 재배포장 관리 철저히"

최근 잦은 강우로 벼와 콩 수확이 늦 어짐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 술원(원장 최준열)에서는 맥류의 안정 생산을 위해 파종 시기 준수와 월동기 재배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관리와 적기 파종으로, 전년에 병해가 발생한 논이나 밭에서 수확한 종자나 외부에서 분양을 받은 종자는 반드시 종자소독을 철저히 해 종자로 전염되는 병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종자소독에 사용할 수 있는 약제로 는 카복신, 티람 분제 등이 있으며, 파종 전 종자 표면에 고루 묻도록 약 1kg당 2.5g 처리하면 효과적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의 맥류 파종 적기 는 10월 20일부터 11월 5일 사이로, 추 위가 시작되기 전에 식물체 잎이 5~6매 정도로 자라야 뿌리가 깊게 내려 추위 므로 파종 적기 준수가 중요하다.

파종이 너무 빠르면 월동 전에 어린 이삭이 생겨 얼어 죽기 쉽다.

반대로 파종이 늦어지면 파종 후 잎 이 3~4개(이유기)인 시기에 월동하게 되어 동해에 약하고 분얼과 성숙이 늦 어져 수량이 떨어질 수 있다.

기상이나 토양 여건으로 파종 시기 가 지연될 경우, 종자량을 기준량(보 맥류 안정생산의 기본 조건은 종자 리 13~20kg/10a, 밀 16~20kg/10a)보다 20~30% 증량하여 파종하고, 밑거름(인 산, 칼륨, 퇴비 등)을 충분히 시비하며 복 토를 두텁게 해 동해를 예방해야 한다.

파종 깊이는 안전 다수확을 위해 붉은곰팡이병, 깜부기병, 줄무늬병 등 2~3cm가 적합하며, 늦게 파종할 때는 5~6cm 정도가 월동에 유리하다.

> 또한, 맥류는 습해에 약하므로 배수로 의 깊이를 30cm 이상 깊게 해주어 습해 를 받지 않도록 하고, 파종 후 3~4일 이 내에 토양처리용 제초제를 살포하여 집 초를 예방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윤대순 기 술보급과장은 "안정적인 맥류 재배를 위해 적기 파종과 월동 대비 배수로 정 에 견딜 수 있고 안전한 월동이 가능하 비 등 재배포장 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는 스마트전기안전 AI센터에 남원용성고등학교 전기제어과 학생 및 지도교사 50여명의 산업체 현장체험학습에 교통편을 지원했다.

#### 전기공사協 전북도회, 남원용성고 산업체 체험 지원

학생 등 50여명 교통편 지원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회장 이재수)는 지난 20일, 충북 오송 에 위치한 협회 스마트전기안전 AI센터 에 남원용성고등학교 전기제어과 학생 및 지도교사 50여명의 산업체 현장체 험학습에 교통편을 지원했다.

미래역량강화사업'의 일환이다,

학생들은 AI 기반 전기안전체험 콘텐츠 를 통해 전기공사의 첨단 기술과 현장 안전관리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며 전기 분야 진로탐색 및 안전인식 제고의 기 회를 가졌다.

이재수 회장은 "지역 특성화고 학생 들이 전기 분야의 가능성을 이해하고, 고향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 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전기공 사업 이미지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전북도회는 매년 도내 공업계 고등학 이번 체험교육은 '2025년 특성화고 교교장간담회를 개최해 기능인력 인프 라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업무 산업체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협약(MOU)를 통해 특성화고등학교 학 생들이 스마트 전기안전 AI센터의 체 험교육 등을 통해 전기공사업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안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혜민 기자

5

# 전북교육청-시애틀 한국교육원, K-독서문화 '확산'

#### 한국어·한국문학의 가치 소개…융합형 국제교류 모델 제시

어와 한국문화의 가치를 알렸다.

전북교육청은 미국 시애틀 한국교육 원과 함께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세 계 최대 독립서점인 포틀랜드 파월북스 (Powell's Books)에서 '한국어 기반 북큐 레이션'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21일 밝혔다.

세계 최대 독립서점인 파월북스에서 열린 북큐레이션은 미국 내 일반 독자들 에게 한국문학의 깊이와 매력을 전하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

특히 전북교육청이 추천한 도서 100선

이 전시됐으며, 현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전북의 수석교사와 사서의 해설이 함께 하는 한국어 수업 독서 문화 체험에 참여

행사에 참여한 미국 현지 한국어 교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미국에 한국 들은 "학생들에게 우리 문화의 전통성과 우수성을 알리는 다양한 교수법을 수업 에 적용해 보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 포틀랜드 파월북스 관계자 또한 "세계 적으로 인정받는 한국문학을 미국 독자 에게 소개하는 뜻깊은 기회였다"며 향후 지속적인 교류 협력에 기대감을 나타냈

전북교육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한글 날의 국제적 의미 확산, 전북 추천도서를 기반으로 한 한국문학 세계화, 현지 독자 교육자와의 교류 확대 등 실질적인 성과 를 거뒀다.



유정기 교육감권한대행은 "이번 북큐 레이션은 단순한 도서 전시를 넘어 한국 어 교육과 한국문학을 매개로 한 교육문 화 융합형 국제교류 모델을 제시한 것"이 라며 "한글과 한국문학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자산이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한국어 교육과 국제교류 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

/최성민 기자

# 전북교육청, 학교 현장 안전관리 체계 강화

#### 안전관리사고 예방 설명회 자율적관리문화확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도내 학교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일 본청 강당에 서 학교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학생안전 관리 및 학생안전사고 예방 설명회'를 개최했다.

유·초·중·고·특수학교(원)장 약 200명 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는 학교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학교장 중심 의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학교장의 안 전관리 책임성과 대응체계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는 배경에서

설명회 주요 내용은 △2025년 학생 안 전교육 중점 추진 방향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단계별 대응체계 안내 △제4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과 학교안

전지원시스템 활용 방법 등 학생안전교 육과 예방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이다.

전북교육청은 이런 내용으로 다음 달 최근 교내·외에서 다양한 유형의 학 3일까지 본청 강당과 전주비전대 행복 기숙사(A+B홀)에서 총 5회에 걸쳐 900 여 명의 학교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설 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사례를 분석하는 한편, 사고 예방과 초 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논의한다.

전북교육청은 이 설명회를 통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현장 중심 안전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전북형 학생안전 사고 대응 매뉴얼'을 통해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신속 대응과 보고가 가능 한 안전시스템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장경단 학교안전과장은 "학교의 안전 은 한 사람의 역할이 아니라 학교 구성 학교현장에서 실제 발생한 안전사고 원 모두가 만들어가야 한다"며 "학교장 을 중심으로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안 전한 학교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 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 전북교육청, 학교 환경교육 한마당 개최

기후행동 실천 사례 등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8 일 국립전주박물관 및 전주역사박 물관 일원에서 '2025 학교 환경교육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함께 그린(Green) 오늘, 함께 만 드는 내일'을 주제로 열리는 이 행 사는 학교 환경교육 자원 연계를 통 한 탄소중립 교육의 현주소를 확인 하고, 학생·교원·교육전문직원 등 이 함께하는 환경교육 실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참가자 중심의 자원순환・탄 소중립 실천 프로그램 체험을 운영 해 환경교육의 공동체적 확산을 도 모한다.

이번 행사는 현수막 없는 부스, 에 코백·다회용기 사용, 탄소중립 실천 약속 챌린지, QR코드를 활용한 스 탬프 인증 등 환경친화적인 방식으 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기후위기·생물다양성·자원 순환·에너지·지속가능성 등 탄소중

립교육과정의 5대 영역을 살린 내 용으로 구성, 참가자들의 탄소중립 실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기후행동 실천 사례 발표, 환경골든벨, 버스킹 공연 등으로 진행되는 '목소리마당' △환경교육학습공동체·학교·유관 기관등이 운영하는 '체험전시부스 마당' △교원, 교육전문직원을 대상 으로 한 나눔마당(전문가 특강) △ 환경영화마당 △실천인증마당 등이

정미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이 번 환경교육 한마당은 학생, 교원, 교육전문직원 등이 함께 참여해 생 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계 기를 만들어가고자 마련된 것"이라 며 "앞으로도 지역 내 사회 환경교 육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환 경교육 자원을 공유하고, 학교와 지 역사회가 협력해 지속가능한 미래 를 만들어가는 환경교육을 적극 추 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 국립전주박물관, 해양문화교류 연구 협력 기반 마련

#### 국제학술심포지엄'동아사아 해양제사와교류개최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은 국제 학술심포지엄 '동아시아 해양 제사와 교 류'를 국립전주박물관 강당에서 개최한 다.

'동아시아 해양 제사와 교류'는 '부안 죽막동 제사 유적'이후 30년 만에 다시 기조강연 '고대 부안 죽막동 제사의 국제 마련된 자리이다.

끝자락의 절벽 위 평탄면에 자리한 해양 제사 유적으로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 항해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제사가 이 립전주박물관) △동아시아 해양 교류의 어져 온 장소이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죽막동 유적의 역 교수 계명대학교) 일본 고대 무나카타 지

사적 중요성을 되돌아보며, 동아시아 해 양 제사 연구의 시각에서 죽막동 유적의 국제성과 해양 교류사에서의 위상을 새 롭게 조명하기 위해 이번 심포지엄을 기 획했다"고 밝혔다.

국제학술심포지엄 '동아시아 해양 제 사와 교류'는 개관 35주년을 기념해 10월 23일부터 24일 양일동안 진행된다.

심포지엄은 중남대학교 우재병 교수의 성과 역사적 의의'를 시작으로 '고대 동아 아울러 부안 죽막동 유적은 변산반도 시아 해양 제사와 교류' 주제가 발표된다. 이어 △삼국시대 부안 죽막동 유적의 특징과 전개 양상(강소희 학예연구사 국 변천과 부안 죽막동 유적의 의미(임동민

역의 교류와 해양 제사 유적(오카테라 미 키岡寺未幾 일본 규슈국립박물관 참사 보좌)이다.

23일 발표 주제 발표 후 이나경(국립중 앙박물관 학예연구사), 임혜빈(국립전주 박물관 학예연구사), 이택구(조선문화유 산연구원장)의 토론이 진행된다.

24일 '동아시아 해양 신앙과 제사' 주제 로 △중국 마조·관음 신앙과 해양 제사 (러우 정하오正豪 중국 절강해양대학 교 수) △한반도 해양 신앙의 변천과 의미 (진정환 국립진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근세 동아시아 해역의 항해 신앙에 대 한 비교사적 고찰(아마우치 신지山內晋 次 일본 고베여자대학 교수) △베트남에 있어서 '남해신' 여러 양상의 성립과 전개 (팜 레 후이Pham Le Huy 베트남 국가대

학 교수) △한반도 서해안의 해양 신앙과 죽막동 수성당제(홍태한 무형문화연구 원)의 발표가 진행된다.

발표 이후 양은경 교수(부산대학교) 김 아네스 교수(한경대학교) 정순일 교수 (고려대학교) 김종호 교수(서강대학교) 강성복 교수(충청민속문화연구소장)의 토론과 함께 1·2부 발표자 및 토론자 전 원이 함께한 종합 토론으로 마무리된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심포지엄 개최의 의의를 "죽막동 유적에 대한 연구의 시 야를 확장하고, 향후 국제적인 인적·문 화적 학술 교류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관련 학계 및 전북지역 역 사 문화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의 적 극적인 참석을 기대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 전북대, 찾아가는 목공예 체험 지역민 '호웅'

10개 어린이집 찿아 체험활동

매년 지역민들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목공예 체험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목 재가공지원센터(센터장 오승원 교수)가 올해 역시 다양한 지역을 찾아 목공체험

업의 지원을 받아 지역민과 지역 어린이 집 등을 찾아 목공예 체험교실을 운영

최근까지 전주와 군산, 남원, 장수, 무 통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 주, 순창 등 10곳의 어린이집(유치원)을 찾아 모두 212명을 대상으로 편백을 이

용한 무드등 만들기 체험활동을 진행했

참여 아동들은 강사의 도움을 받이 나무판에 색칠하기, 목공풀로 나무 붙 이기, 목재 표면 사포질 등을 통해 목재 와 친밀해지는 경험의 기회를 가졌다.

오승원 목재가공지원센터장은 "대학 이 가진 우수 인프라와 역량을 지역민들 목재가공지원센터는 국립대학육성사 과 공유해서 지역민들이 우리 전통 목공 예 문화를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 를 마련하기 위해 매년 찾아가는 체험행 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우리 전통 목공 센터는 올해 역시 지난 9월 2일부터 예 체험을 통해 더 많은 지역민들과 소 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정읍시가 오는 25일 중앙도서관 야외 독 서정원에서 '책과 가을 감성이 물드는 야 외밤도서관'을 연다.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독서·놀이·공연 등 테 마별로 꾸며져, 시민 누구나 책과 음악이 함께하는 가을밤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 록 준비됐다.

행사장은 △리딩존 △놀이존 △공연존으 로 나뉘어 운영된다.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운영되는 '리딩존' 은 전자기기를 잠시 맡기고 오로지 독서에 만 몰입하는 '디지털 디톡스' 공간으로 꾸 며진다.

같은 시간 '놀이존'에서는 어린이 가족을 위한 패밀리 벌룬쇼와 함께 '북크닉' 공간 이 마련돼 즐거움을 더한다. '공연존'에서 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첼로 공연과 가 을밤 낭독회가 이어진다.

이번 행사의 백미는 '첼로, 가을의 정원 초청 공연이다.

유튜브 '미스터첼로'로 유명한 김대연 첼 리스트와 빈 국립음대에서 학·석사 및 전 문연주자 과정을 마친 정상욱 피아니스트 가 협연해 가을밤을 따뜻한 선율로 채울 예 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도서관이 책 읽는 공간을 넘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문화공간으로 인식되기를 바란다"며 "디지 털 디톡스를 경험하며 일상에 새로운 활력 을 얻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익산석 가치 재조명 25~26일 '돌아온 <u>돌동</u>잔치' 개최

익산시가 석재 산업과 문화, 예술이 어우 러진 '돌돌잔치'로 시민과 관광객을 맞이한 다.

익산시는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황등 면 익산석제품전시홍보관 일원에서 '돌아 온 돌돌잔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돌아온 돌돌잔치'는 한층 풍성한 프 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축제 기간 △채석장 전망대 개막식 △모래체험 △석공예품 전 시  $\triangle$ 먹거리 부스  $\triangle$ 버블쇼·풍선아트  $\triangle$ 돌 체험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마련된다.

시는 이번 축제를 통해 석재산업을 단순 한 전통 산업에서 나아가 예술과 관광이 결 합된 콘텐츠로 발전시키고, 석재를 지역의 문화 자산으로 재소명해 지역경제 활성화 와 시민 참여형 문화 확산을 이끌 방침이 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오랜 세월 지역과 함 께해 온 익산석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축제가 될 것"이라며 "돌의 도시 익산에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시간을 모두가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시민 참여형 예술의 장 군산 진포예술제 30일 개막

늦가을 역사와 전통을 잇는 제57회 군산 진포예술제가 오는 30일부터 11월 2일까 지 4일간 군산예술의전당과 은파호수공원 물빛다리 광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먼저 30일 저녁 7시 30분, 군산예술의전 당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개막공연이 포문

을 연다. '진포! 예술의 향기로 물들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에는 폭발적인 가창력 의 가수 소찬휘가 초청돼 화려한 무대를 선 보이며, 지역 전문 예술인들의 창작 공연도 함께 펼쳐진다.

10월 31일에는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 장에서 가족극 '우리는 물건이 아니야'가 공연된다.

11월 1일부터 2일까지는 은파호수공원 물빛다리광장에서 청소년 예술단체의 다 채로운 공연, 무용협회의 부채춤·장구춤· 춘설, 연예예술인협회의 지역 가수 초청 무 대, 영화인협회의 영화 상영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군산시 관계자는 "최근 세계 동향과 경제 침체 등으로 침울한 분위기에 조금이나마 웃음꽃을 찾고 예술이 꽃피는 살기 좋은 도 시 군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라 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 군산, 해양무인시스템 실증 시설 구축

#### 2027년까지총사업비 214억원투입새만금 내해에 성능시험장조성

군산시가 새만금 내해에 해양무인시 스템 실증·시험평가 성능 시설을 조성 해 '해양 무인시스템 실증 중심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함 께 주관기관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의 '해양무인시스템 실증 시험·평가 기 술 개발사업'에 2027년까지 총사업비 214억 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는 수상&수중 계측 시스 템, 기본운항, 제어, 자율운항, 임무수행 성능평가 장비 설치가 진행되며, 내해 인프라 시설·통합관제센터가 본격적으 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시는 "최근 세계적으로 해양자원 개 발과 해양 무인이동체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해군 무인화가 가속화되면 서 해양무인시스템의 객관적 시험평가



및 인증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공인된 시험장과 인증시설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사업 배경을 설명

군산 새만금 내해는 파고의 변화가 적은 안정된 해역 여건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해양환경 조건을 안정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군산시와 선박해양플랜트연구 다"라고 말했다. 소는 LIG넥스원, 아쿠아드론 등 공동

참여기업들과 함께 해군, 해경 등과 협 력해 공인된 시험·평가 체계 구축을 지 속적으로 논의중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해양무인시스템 시험장을 활용해 민간기업, 연구기관, 방위산업 기관들을 지역에 집적화하고, 나아가 국내 해양무인이동체 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도록 노력하겠

/군산=지송길 기자

### 명품교육도시 익산 '평생학습축제' 개최

25일 모현공원 일원서 열려

익산시가 교육발전특구와 평생 학습 성과를 시민과 함께 나눈다.

익산시는 오는 25일 오전 10시부 터 오후 5시까지 모현공원 일원에 서 '2025 익산시 교육발전특구와 함 께하는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한다 고 21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익산시와 익산시 교 육공동체지원센터가 공동 주관한 다. 교육발전특구 시범 선도지역의 다양한 사업성과를 시민과 공유하 고, 누구나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체 험형 축제로 마련됐다.

주요 체험으로 △내 손으로 첫 향 수 만들기 △달콤 쏙! 마음 충전 마 카롱 만들기 △톤앤톤 나의 컬러 찾 기 △타로가 알려주는 나의 운명 △ 나만의 그립톡·비즈팔찌 만들기 △ 드론 다트 게임 △3D펜으로 만드는 백제고도 익산 키링 등이 진행된다. 또 기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라탄

공예·캘리그라피·아로마테라피 체 험을 비롯해 △너와 나의 오늘! 인 생네컷 촬영 △축제에서 만난 나만 의 커피 △함께하는 가족 보드게임 페스티벌 등 쉼과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감성존도 함께 꾸며진다.

시는 이번 축제를 통해 시민 교육 기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익산형 교육공동체 모델'을 선보이며 지역 교육 거버넌스의 새로운 방향을 제 시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축제는 학생과 학부모, 시민이 함께 배우 고 성장하는 익산형 교육축제"라며 "아이들에게는 꿈과 진로의 기회를, 부모에게는 배움의 즐거움을, 시민 에게는 휴식과 소통의 시간을 선사 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상담부터 취업까지 '익산 통합일자리센터' 개소

#### 교육·취업·사후관리까지 역량강화교육등제공

익산 시민 누구나 일자리 상담부터 취업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통합 일자리센터가 문을 열었다.

익산시는 21일 옛 제2청사에 새롭게 조성한 '익산 통합일자리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 어갔다

익산 통합일자리센터(이하 센터)는 그 동안 청년, 신중년 등 계층별로 분산돼 있던 일자리 기능을 한 공간에 통합해, 시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고용서비스 를 받을 수 있도록 조성된 일자리 지원 거점시설이다.

센터에는 10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해 구인·구직 상담, 채용 연계, 직업훈련, 창 업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 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한 번의 방문만 으로 취업 알선 상담뿐만 아니라 역량강

화 교육, 지역 내 각종 일자리 관련 지원 시업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

정헌율 시장은 "익산 통합일자리센터 는 시민들의 취업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 답을 제시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 으로도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통합일 자리 지원 체계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 와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적 극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 군산시, 누리집에 '새만금' 전용 메뉴 신설

군산시가 새만금의 진짜 모습을 알 리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군산새만금' 전용 메뉴를 새롭게 개설했다고 21일 밝혔다.

'군산새만금' 메뉴는 복잡한 행정·법 률 용어 대신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설명으로 꾸며졌다.

특히 세부적으로 △군산에서 시작되 는 새만금 △새만금 해양거점도시 군 산 △군산시의 새만금 관할권 주요논 리 △새만금 관할구역 결정 대응 현황 △군산새만금 홍보영상 총 다섯 개의 항목으로 자세하게 구성됐다.

군산시는 누구나 새만금사업의 역사

적 배경부터 새만금항 신항 등에 대한 군산시의 정당한 관할권 주장 근거와 대응 현황까지 주요 내용을 한눈에 확 인해볼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라고 설 명했다.

접속 역시 군산시청 누리집 메인화 면에서 상단에 있는 '군산새만금' 메뉴 를 클릭하면, 시민 누구나 컴퓨터나 스 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입장이 가능

군산시는 앞으로 다양한 시각 자료 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 정읍시, 고사리부성·말목장터 현장 중심 행정

#### 천년 고도 역사 복원 시민참여형 문화공간 조성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난 20일 고사부 리성 복원 및 정비공사 현장과 말목장터 문화광장 조성 예정지를 차례로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의 실효성과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 적극행정을 펼쳤다.

먼저 고사부리성 복원현장을 찾은 이 학수 시장은 "단순한 성벽 복원에 그치 지 않고 성터를 정비해 의미 있는 시설 물과 체험 콘텐츠를 결합한 복합형 역사 공간으로 발전시킬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성벽의 형태가 시민의 눈에 명 확히 보이도록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잡목 제거, 소나무 전지작업 등 주변을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성벽 복원, 성터 정비, 잡목 제거 사업을 연계해 국비를 동시에 신청하도 록 하고 '성벽 밟기 행사' 등 시민이 참여 검토하도록 강조했다.

이학수 시장은 "성벽 높이와 망루 등 을 명확히 정립할 것"을 지시했다.



구조물 복원 방향은 역사적 고증을 토대 로 신중히 결정하고 천년의 역사가 시민 곁에서 살아 숨 쉬는 공간이 되도록 장 기적 복원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 부했다.

이어 방문한 말목장터 문화광장 조성 지에서는 "주민과 함께 만드는 현장행 정이 곧 적극행정의 출발점이라며 동학 할 수 있는 문화활용 프로그램을 적극 기념사업회뿐 아니라 지역 주민이 참여 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사업의 추진방향

또한 주변 건물 매입 등 부지 확장 방 안을 함께 검토해 광장이 시민과 관광객 이 머무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이학수 시장은 "고사부리성은 정읍의 뿌리를, 말목장터는 민초의 함성을 상 징하는 역사적 현장이라며 두 공간을 잇는 정읍형 역사문화벨트를 시민과 함께 완성해 정읍의 정체성과 자긍심 을 더욱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 정읍 '달빛장터와 슈퍼푸드 페스티벌' 순항

첫 주말 1천3백여 명 방문

지난 주말, 정읍역 광장이 맛있는 먹 거리와 흥겨운 음악, 시민들의 웃음소 리로 가득 찼다. 올해 처음 선보인 '똑 똑한 달빛장터와 함께하는 정읍 슈퍼 푸드 페스티벌'이 첫 개최부터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으며, 정읍 역 광장을 새로운 복합 문화공간으로 리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다. 변모시켰다.

으로 지난 18일과 19일 열린 1·2회차 업 제품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다" 행사에는 총 1300여 명의 방문객이 다 명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문화 녀갔다. 가을 관광 시즌을 맞아 처음 선보인 이번 행사는 오는 11월 9일까 다"고 말했다.

지 매주 토·일요일, 총 8회에 걸쳐 정 읍역 광장에서 펼쳐진다.

마을기업·사회적기업·공동체 등 25 개 팀이 참여한 장터에서는 신선한 농 산물과 전통 장류, 수공예품 등 정읍의 특색 있는 상품들이 판매돼 방문객들 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구절초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정읍의 우수 먹거

이학수 시장은 "성공적인 첫 개최로 정읍시와 정읍시지역활력센터 주관 정읍의 우수 먹거리와 사회적경제기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 /정읍=김정인 기자

# 익산시, 김치명인과 함께하는 김장축제 열린다

#### 내달 22~23일 김장 현장 체험·다양한 볼거리 제공

익산에서 김장 고민을 해결하고, 체 험까지 즐기는 축제의 장이 펼쳐진다.

문화축제 익산'을 주제로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김장 행사를 진행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장 준비에 부담을 느 램이 진행돼 볼거리를 제공한다. 끼는 소비자들을 위해 마련됐다. 김장

40~50대는 물론 김장 첫 도전에 나선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김치골든벨· 20~30대에게도 안성맞춤이다.

축제는 익산 농가의 절임배추와 김치 명인이 직접 만든 양념을 받아 참가자 익산시는 11월 22~23일 중앙체육공 가 직접 김치를 버무려 가져갈 수 있는 원에서 '김치명인과 함께하는 K-김장 체험과 간편하게 꾸러미를 받을 수 있 며 "세대를 넘어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 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이날 현장에는 김장 현장 체험과 꾸 한 맛과 멋을 되새기고, 시민들이 나눔 러미 수령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 과 전통의 가치를 함께 나누길 바란다"

김치명인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전

체험 꾸러미는 100% 국내산 농산물 통 김장 시연을 비롯해 전국 8도 김치 로 구성돼 간편하게 김장을 하고 싶은 를 전시한 김치홍보관이 운영된다. 또 김치색칠나라・김장놀이체험장 등이 다 채롭게 마련된다

> 정헌율 익산시장은 "김장문화는 우 리 고유의 전통이자 소중한 유산"이라 는 참여형 축제를 통해 익산만의 고유 고 말했다.

> > /익산=최준호 기자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전국 최고 레트로 여행지로

벨트화 지역이 단순한 전시 공간을 뛰 을 전시중이다. 어넘어 군산을 전국 최고의 레트로 여 행지 반열에 올랐다.

박물관 벨트화지역은 박물관을 비롯 해 근대건축관(옛조선은행), 근대미술 관(옛일본제18은행), 진포해양테마공 원(위봉함), 장미갤러리이다.

군산시는 이 지역이 근대역사·문화 공간으로 활용중이다. 의 산 교육을 비롯해 수제맥주페스티 행, 시간여행축제, 짬뽕축제 등 군산 대표 축제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등 복합문화·예술·축제 공간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고 밝혔다.

층·지상4층에 연면적 4천248㎡ 규모 로, 해양물류 역사관, 근대생활관, 어 린이 체험관 등을 통해 선사시대부터 전했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박물관') 현재까지 시대별 수만여 점의 유물들

근대미술관은 1907년(대한민국 융 희1년)에 우리나라 미곡과 사람의 토 지를 각각 일본으로 실어내고 강매하 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됐다.

현재 본관은 군산 및 전북특별자치 도 출신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금고동은 근대기 대표적인 독립운동 벌, 국가유산미디어아트, 국가유산야 가인 안중근 여순감옥 재현 공간으로, 관리동은 18은행 건축부재 전시공간 으로 활용되고 있다.

군산시 문화관광국 김봉곤국장은 "차별화된 전시와 행사로 시대변화상

먼저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지하1 과 방문객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등 박 물관이 전시와 문화·예술 복합공간으 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군산=지송길 기자 전북타임스

# 삼성전자 스마트허브단지 내달 '첫 삽'

#### 11월 10일 고창신활력 산단내부지서착공식 2027년 완공목표

전북 고창군에 들어서는 삼성전자 스 마트허브단지(물류센터)가 오는 11월 10일 오전 10시 30분, 고창신활력산업 단지 내 삼성전자 부지에서 착공식을

이번 사업은 고창군과의 투자협약 당 시 3000억원 규모로 계획됐으나, 실시 설계를 맡은 무영건축의 최종 설계와 시공사인 동부건설의 시공 확정 과정 에서 총사업비 3500억원 규모로 확대

삼성전자는 이번 투자를 통해 남부지 역의 원활한 물류·유통체계 구축을 목 표로 호남권 대규모의 첨단 물류센터 를 건립할 예정이다.

착공식에는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 해 삼성전자 임원급 관계자, 고창출신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 도의원, 고창군의회 군의원 및 지역 기 관·사회단체장과 주민 등 약 1000여 명 이 참석할 예정이다.



스마트허브단지는 18만1625㎡(축구 장 25개 규모) 부지에 건립되며, 자동 화 기술과 친환경 설비가 결합된 첨단 물류센터로 조성된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완공 후에는 500여 명의 직·간 접 고용과 전북 서남권 산업 생태계 활 성화가 기대된다.

트허브단지는 자동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각 장비의 연동이나 유지보수 등이 중요한 포인트다. 자연스럽게 로 봇, 컨베이어 등 자동화 장비 기업들의 연쇄 투자와 이전까지 기대되고 있다.

또한 공사기간 시공사와 협력업체를 통한 '고창 관내 소비 확대'도 기대되고 있다. 수백명에 달하는 건설 인력과 장 비,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고창 관내 숙 박시설·식당·주유소 등 지역 업체를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심덕섭 고 창군수는 "삼성전자의 전북 첫 투자이 특히 삼성전자가 계획하는 고창 스마 자, 3500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가 고창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착공이 전 북 첨단산업의 새 이정표가 되고, 고창 군이 스마트 물류산업의 중심지로 성 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고창군, 전직원 대상 4대폭력 예방교육

#### 올바른조직문화함양중점

고창군이 상반기 고위직 공무원 대상 폭력예방 교육에 이어 지난 20일 출연기관을 포함한 고창군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교육 을 실시했다.

된 교육은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 통합교육으로 올바

교육을 맡은 양동옥 강사(한국 젠더문화연구원 원장)는 "우리 모 두를 빛나게 하는 힘-성인지감수 성"이라는 주제로 조직의 언어, 조

직의 회식문화, 동의의 온도 점검, 폭력예방을 위한 역할 등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며 강의 를 진행했다.

특히, 다양한 사례와 실습을 통 해 폭력예방 및 피해발생 시 올바 른 대처방법을 제시하며 4대폭력 고창군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 문제를 공감하고 경각심을 일깨우 는 계기를 마련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교육 른 조직문화를 함양하는데 중점을 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을 스스로 점검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 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 로도 지속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 하겠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부안군,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저감사업 '호응'

#### 지속가능한 농촌환경 조성

부안군과 (유)어스그린환경센터가 추진 중인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농경지에서 유출되는 비 료·농약·토사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을 저감하기 위한 환경개선형 주민참 여 프로젝트로, 올해 3월부터 총사업 비 1억 원을 투입해 시행 중이다. 주민 이 직접 참여해 마을 단위의 자율적 환 경관리를 실천함으로써 공동체 회복 과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목표

로하고 있다.

사업은 △논 배수물꼬 보급 △수질 모니터링 △주민 역량 강화 교육 등 다 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지 난 10월에는 부안읍 내요리의 석재·석 하·역귀 3개 마을 주민들이 토양정비 에서 꽃 식재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 해 유휴공간을 활용한 마을 꽃길 조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부안군은 이번 사업 성과를 바탕으 로 2026년도 사업예산을 증액하고 대 상지를 확대해 주민참여형 환경개선 사업을 한층 활성화 할 계획이다.

/부안=신상수 기자

# 부안군의회, 논콩 피해 지역 재해 지정 촉구

#### "생산 논콩 전량 수매 등 지원 대책 이뤄져야"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21일 제 366회 임시회를 열고 김원진 의원이 대 표발의한 '논콩 피해에 따른 재해지역 지정 및 생산 논콩 전량수매 촉구 건의 안'을 채택했다.

이번 임시회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 한 논콩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피해 농 가의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 련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하루 일정으 로 진행됐다.

건의안 내용은 △부안군을 비롯한 전 북 지역의 논콩 피해 실태를 면밀히 조 사하고 신속히 재해지역으로 지성할 것 △피해 농가의 어려움을 고려해 생산된



책을 즉시 마련할 것 △기후변화에 대응 한 배수시설 개선 및 재해예방 등 중장 기적 개선대책을 수립할 것 등을 정부에 족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감한다며, 정부 정책만 믿고 벼 대신 논콩을 심었다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은 피해 농가들이 체감 할 수 있는 해결 방안 능 현실적인 지원 박병래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논콩 피 과 대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필 논콩을 전량 수매하고 농가소득 보전 대 해로 상심이 큰 농민들의 마음을 깊이 요성을 제기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 고창군, 해양보호구역 이해관계자 협력 강화

#### 내일까지 제18회 해양 보호구역 대회 개최

호텔과 고창갯벌 일원에서 '제18회 해 양보호구역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 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와 고창군, 해양환경공단 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며, 전국 해양 보호구역 지자체, 유관기관,단체, 전문 가, 지역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할 예 정이다. 참가자들은 해양보호구역 관 탐조, 복원지 사운드워킹, 습지보호 정 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리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책 탐방)으로 나눠 운영된다.

정책 협력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 한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해양보호구역 정책 방향' 소개와 '해양 와 공동 협력사업 발굴 방안이 논의된 고창군이 오는 22~23일까지 웰파크 보호구역 토크콘서트'를 통해 해양보 다. 호구역 관리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

를 체험하는 '고창갯벌 현장투어'가 진 안 중심의 논의가 이어진다.

생식물 탐방, 세계유산 고창갯벌 철새 지속가능한 해양보호구역 관리 방안

23일에는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 네 트워크 총회'와 '주제별 세미나'가 열린 22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2026년도 다. 총회에서는 지역센터 간 정보 교류

세미나에서는 △갯벌 복원 워크숍 △ 세계유산 OUV 모니터링 △해양보호구 또 참가자들이 직접 고창갯벌의 생태 역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등 실질적 현

최순필 고창군 세계유산과장은 "고 현장투어는 4개 세션(갯벌식물원 염 창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고창=백종규 기자

### 부안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교육

#### 방역현장 대응체계 강화

부안군보건소는 지난 16일부터 17 일까지 2일간 보건소 3층 회의실에서 '2025년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 염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조류인플루엔자(AI)발 생 시 인체감염 고위험군인 가금농가 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축산부서 등 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조류인플 루엔자 인체감염증 정의 및 주요 증 상 △감염경로와 예방수칙 △보호복 착탈의 등을 시행했다.

특히, 개인보호구 착탈의 과정을 직 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접 시연하며 실제 현장에서의 안전한

방역수칙 준수 방법을 익힐 수 있도 록 진행했다.

또한, 교육 참석자 전원을 대상으로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완료해 고위험군의 감염병 이중노출을 방지 하고 건강한 방역현장 대응체계를 강

부안군보건소(소장 박찬병)는 "이 번 교육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을 대비한 대응역량을 높일 수 있었 다"며 "참석하지 못한 인원에 대해서 도 현장 투입 전 별도 교육을 실시해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대응대

/부안=신상수 기자

#### '한복 문화주간 고창에서 피어나는 한복' 개최

고창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은 오 운영된다. 는 24~26일(3일간) 고창군 전통예술 체험마을에서 '2025 한복문화주간-

고 밝혔다.

국 한복문화주간 기획프로그램의 일 환으로, '바르게 입고, 자연스럽게 누 리는 한복'을 주제로 일상 속 한복문 화 확산을 목표로 한다.

나는 오색빛깔(천연염색), 향기 품은 한복, 우리 가족 향기공방 등 5개의 사전예약 프로그램과 한복과 전통놀 이, 가족한복사진촬영, 전통예술체험 마을 부스 전시 등 상시 프로그램이

특별 공연으로 25일 오후 1시30분 부터 3시30분까지 풍요재 앞에서 '전 고창에서 피어나는 한복'을 개최한다 통과 현대가 만나는 가을 음악회'가 열린다. 1부에서는 프로스트(PROST)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 가 팝페라 앙상블을, 2부에서는 투론 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전 (TURON)이 아시아월드뮤직 공연을 펼쳐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음악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고창문화관광재단 조창환 상임이사 는 "이번 한복문화주간은 고창군 전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한복예절교 통예술체험마을과 한복문화를 연결 육, 한복소품 만들기, 손끝에서 피어 해 지역 대표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키 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한복을 착용하고 고창의 아름다운 전통 공간에서 특별한 추억 을 만들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부안군, 로컬푸드 출하농가 대상 현장교육…역량강화기대

부안군은 지난 20일 부안 로컬푸드에 출 하 중인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실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교육은 완주 로컬푸드 협동조 합이 운영하는 대표 직매장을 방문해 △운 영체계 △농산물 품질관리 △소비자 신뢰 확보 방안 등을 청취하고, 이어 완주 지역 의 모범 출하농가를 찾아 재배기술 및 상품 화 전략을 현장에서 직접 배우는 시간을 가

김선채 농촌활력과장은 "이번 견학을 통 해 출하농가들이 선진 사례를 배우고, 부안 로컬푸드 직매장의 운영 활성화와 품질 향 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은 현재 푸드앤레포츠센터 내 로컬푸드 직매장을 중심으로 지역 농산 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 에 힘쓰고 있으며, 11월 중 격포점 개장을 앞두고 있다.

격포점이 개장되면 부안군 로컬푸드 직 매장은 고속도로 휴게소 상행선에 있는 행 복장터까지 총 3개소에서 운영되며,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신선하고 믿을 수 있 는 부안 농산물을 손쉽게 만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부안=신상수 기자

#### 부안향교지구 마을가꾸기 사업 '섬바끄목련정원' 개원

부안군은 향교지구 주민들과 지역정원사 모임인 '부안마실정원사'가 함께 조성한 '섬 바끄 목련정원'의 개원식을 지난 16일 개최 했다고 밝혔다.

'섬바끄 목련정원'은 향교지구 마을가꾸 기 사업의 일환으로 향교지구 청우평생학 습관 옆 공터에 조성된 마을정원으로 행정 과 주민, 지역단체가 협력해 마을의 유휴 공간을 재생한 대표적인 주민참여형 사례 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정원 조성은 부안군과 부안마실정 원사가 함께 기획·설계 및 식재를 결정해, 향교지구 수민들이 직접 잠여하는 3자 협 력 구조로 진행됐는데, 기획 단계에서부터 주민 의견을 반영해 공간 배치와 식재 수종 을 선정했고 조성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함 께 식재·정리·꾸미기에 참여하며 '내 손으 로 가꾼 우리 마을정원'이라는 성취감을 나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에 조성된 '섬바끄 목련정원'은 행정의 지원과 지역 자생단체, 주민의 손길이 어우러져 완성된 공간인 만 큼 단순한 정원 조성을 넘어 주민이 참여 하는 생활환경 관리의 기반이 되길 바라며, 사회적경제와 공동체 활성화를 연계한 모 범사례로 자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 고창-서울청소년,세계유산축전 함께하며교류·우정다짐

고창군은 서울시와 고창군 청소년들이 지난 16~18일 고창군 일원에서 '2025 고창 군-서울시 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을 성 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고창군의 청소년 20명이 참여 해 상하농원, 전통예술체험마을, 세계유산 축전 행사장 찾아 '탐조여행', '고인돌마실 여행' 등 다양한 역사·문화·생태 체험을 함 께했다.

참가 청소년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다른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뜻깊은 경험을 했다. 행사 마지막 날에는 서로의 소감을 나누고, 앞으 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우정을 이어가자는 다짐을 담은 '청소년 우정 선언문'을 낭독 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창군 인재양성과 유정현 과장은 "이번 교류를 통해 청소년들이 지역 간 장벽을 넘 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역사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길 바란 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김제시, 외국인근로자와 함께하는 문화피크닉 열려

#### 한국문화체험·여가활동 통해교류증진도모

자와 시민이 함께 어울리는 문화교류 한마당을 개최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와 시민이 함께 어울리 화피크닉 - Global worker's 휴~페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돼, 이를

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한 한국 문화체험과 여가활동을 통 장이 될 전망이다. 해 심리적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얻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외국인근로 고 지역사회 구성원과 상호 이해와 교 해 관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축제에는 관내 외국인근로자와 가 하고, 다양한 체험으로 한국 사회에 시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6시까 족 등을 대상으로 음식 부스, 한국전 대한 이해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 요촌동에 위치한 지평선문화축제 통의상인 한복, 전통놀이(제기차기, 며, "함께 사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며, 발전소 광장(김제시 동서로 168)에서 딱지치기, 투호놀이), 한의원 기본 건 외국인근로자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강검진과 JB은행의 금융상담, 노무사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는 문화교류 한마당 "김제 All day 문 법률 및 행정 상담, 헤어 및 네일 케어 말했다.

통해 외국인근로자와 시민이 자연스 이번 행사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다 럽게 어울리며 문화를 나누는 소통의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 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

/김제=온봉기 기자

최범현 어르신, 남원 적십자에

최범현 어르신이 "적십자를 위하여 써달

최 어르신은 평생대학 출범때부터 20년

넘는 세월을 평생대학에 열정을 갖고 면학

올해로 90세를 맞은 최범현 어르신은 "오

랜세월 함께 해온 평생대학을 위해 적은 성

남원 적십자 평생대학은 매주 화요일에

강연과 노래교실, 체조교실 등을 운영 중이

다. 100여명의 어르신들이 매주 공부에 매

진하며 건강을 위해 열심을 다하며 즐거움

박영수 남원시협의회장은 "어르신들이

행복한 대학, 항상 건강한 생활을 하시도록

/남원=정하복 기자

평생대학을 위해 잘 쓰겠다"고 답했다.

.

일백만원 전달

해오고 있다.

라"며 일백만원을 전달했다.

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을 만끽하고 있다.

# 순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본격 시동

#### 21일 주민공청회 열고 의견 수렴 북서부 지역 재편 시행계획 설명 12월까지 최종안 확정 계획

순창군이 농촌공간의 체계적 발전과 지속 가능한 미래 설계를 위한 정책 마 련에 본격 나섰다.

군은 21일 복흥면 복지회관 2층 회 의실에서 주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에 대한 주 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북서부재생활성화지 역'으로 지정된 복흥·쌍치·구림면 지역 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농촌공간을 으로 마련됐다.

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져 큰 호응을 다.



군은 21일 주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순창군>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재 회는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편성하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의 일환 우리 순창의 미래 농촌공간을 주민과 함께 설계하고 완성해가는 매우 중요 특히 기초생활서비스 확충과 농촌 지 한 첫걸음"이라며, "농촌, 그 가운데서 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해 기능이 약 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으로 배후마을 도특히 우리 순창군의 농촌공간이 사 서비스 전달 체계, 커뮤니티 공간 조성, 람 중심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 특화지구 육성 전략 등 구체적인 계획 도록, 군민 여러분의 지혜와 참여를 모 정계획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들이 소개됐으며, 주민들의 실질적인 아주시면 더 멋진 행복 순창의 밑그림 기본계획'을 전국 최초로 수립한 바 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목소 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 다.

한편, 군은 12월까지 주민 및 전문가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주민공청 의견을 바탕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최종안을 확정할 계 획이다.

> 앞서 순창군은 농촌의 난개발과 인 해진 마을을 정비하고, 주민의 삶의 질 을 높이기 위해 10년 단위 중장기 법

> > /순창=박지헌 기자

### 남원시 '가을 3대 축제' 누리시민 스탬프 투어 성료

#### 축제 기간 신규가입자 2,800여명 체류·소비 이어져 지역상권 호응 관외 누리시민 재방문 의지 강화

남원시가 이달 16~19일 국제드론제 전·흥부제·국가유산야행과 연계해 운 영한 '남원누리시민 스탬프 투어'를 성 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축제 기간 신규가입자가 2,800여 명 에 달하는 등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남원 누리시민 스탬프투어는 축제 기 간 관외 누리시민이 3대 축제 현장을 순회해 스탬프 인증을 완료하는 방식 으로, 완주자에게는 행사장 내에서 사 용할 수 있는 원푸드 등 농산품 이용권 이 지급되었으며 숙박 인증 참여자에 게는 이용권을 추가로 제공했다.

텔 '명지각' 숙소 30% 모바일 할인쿠 혔다. 폰 또는 농산품 이용권(5만원)을 증정



남원시가 10월 16~19일 국제드론제전·흥부제·국가유산야행과 연계해 운영한 '남원누 리시민 스탬프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사진=남원시>

500번째 완주자로 N번째 완주자 이 "농산물 이용권 사용자 유입으로 저녁 벤트에 당첨된 김모씨는 "주말 동안 세 까지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 관외 누 아울러, 남원누리시민 15만 명 돌파 가지의 축제를 한 번에 즐기고, 현장에 리시민과 지역상권을 연결해 준 프로 를 기념해 진행한 'N번째 완주자' 특별 서 바로 쓰는 이용권으로 지역 특산품 이벤트도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이 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좋았다. 명 벤트 당첨자에게 12월 31일까지 사용 지각 할인쿠폰으로 연말에 가족과 다 통해 관외 누리시민의 재방문 의지를 할 수 있는 지역특화 친환경 한옥 호 시 남원을 찾을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

지역 상권의 만족도도 높았다. 원푸

드페스타에 참가한 지역상인 이모씨는 그램이라 체감 효과가 컸다"고 말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취하고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이동식 식 접수해 관련 기관과 협의 후 심층 강화하고, 숙박·식음·관광을 연계한 체 권익구제 서비스로 행정기관 방문이 조사와 해결 절차를 밟게 된다. 류형 소비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어려운 복지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용진읍이 10년째 이어오고 있는 '사랑의 쌀 벼베기 행사'를 21일 열 <사진=완주군>

#### 완주군 용진읍 10년째 '사랑의 쌀 벼베기'

이장협의회·새마을부녀회 주관 100여명수확…내달나눔예정

완주군 용진읍이 10년째 이어오 고 있는 '사랑의 쌀 벼베기 행사'를 21일 용진읍 이장협의회(협의회 장 민성필)와 새마을부녀회(회장 신점순) 주관으로 열었다.

를 비롯해 이장과 부녀회장, 기관・ 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사회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여해 풍년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2008년부터 매년 용진읍 행정복 지센터 앞에 쌀과 편지를 놓고 가 던 익명의 독지가의 따뜻한 선행 에서 비롯됐다.

가 2016년부터 동참해 올해로 10 리고, 이 정성이 꼭 필요한 이웃들 회째를 맞았으며, 지금까지 총 3 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 만 3,400kg의 백미를 홀몸 어르신, 다.

국민권익위와 30일 향교동 운영

남원시는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향교동행정복지센터에

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맞춤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

함께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가 주민

들의 다양한 고충과 불편사항을 청

밝혔다.

사회복지·신용·채무 등 상담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 3,340세 대에 전달하며 지역사회의 온정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약 1만 3,000㎡(4,000여 평) 농지에 벼를 심어 4,000kg의 쌀 수확을 목표로 지난 6월 모내 기를 진행했으며, 이날 수확한 벼 는 건조·도정 과정을 거쳐 오는 이날 행사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11월 '사랑의 쌀 전달식'을 통해 어

민성필 이장협의회장은 "올해는 지속된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며 벼에 병충해 피해가 많아 걱정이 컸지만,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함 '사랑의 쌀 나눔행사'는 지난 께 정성을 다해 농사를 지은 덕분 에 수확의 기쁨을 나눌 수 있어 감 사하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매년 나눔 을 실천해주시는 용진읍 이장님들 이에 감동한 용진읍 이장협의회 과 부녀회장님들께 깊이 감사드 /완주=김명곤기자

활공간 인근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

이번 상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생

활 속 고충민원상담과 더불어 사회복

지협의회와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업

기관으로 참여해 사회복지상담과 신

정이다. 누구나 행사장을 방문해 상담

받을 수 있으며, 단순 민원이나 궁금

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국

민권익위원회에서 고충민원으로 정

/남원=정하복 기자

공하고자 기획됐다.

#### 청소년 미술심리 치유 순창군은 지난 20일 순창새솔중학교에서

순창군 '마음 톡톡 두드림 교실'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마음 톡톡 두드림 교실' 1차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기의 정서적 불 안과 학업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긍정적 자 아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내 중 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술심리 치유 프로그램이다.

1회차 프로그램은 순창새솔중학교 미술 실에서 진행됐으며, 2학년 88명을 대상으 로 사전 우울선별검사와 미술치유활동이 진행됐다.

특히, 쿠키를 활용한 감정 표현 활동을 통 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표 현하고 또래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음 톡톡 두드림 교실'은 총 4회차로 구 성되어 있으며, △피카소 얼굴 표현하기 △ 클레이 협동 작업 △희망나무 그리기 등의 미술활동을 통해 감정 인식과 자기표현 능 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다. 마지막 회기 에는 사후 우울선별검사를 통해 프로그램 효과도 분석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들이 심리적 안정과 자기 치유의 힘을 기를

/순창=박지헌 기자

# 완주군, 재난 대응 현장 총점검 "실전처럼 완벽하게"

#### 2025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진행 집중호우·산사태 시뮬레이션 훈련 16개유관기관·단체참여

"비상상황 발생! 인명 매몰 신고 접 께 참여했다.

순식간에 긴박한 현장으로 바뀌었다.

산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재난 발생 시 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훈련으로, 완주경찰서·완주소방서·완주군시설관 리공단 등 16개 유관기관과 단체가 함 구·통제 절차를 실제처럼 전개했다.

21일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일대가 방식으로 동시에 운영돼 실제 재난현 장을 방불케 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완주군은 이날 재난안전상황실과 고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역량을 높이기 파, 인명 구조, 응급복구, 주민 대피 등 속적으로 대응체계를 보완해 나가겠 위한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공유하며 기 다"고 밝혔다. 관 간 협업체계를 점검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산사태로 인한 인명 매몰과 도로 단절을 가정해 소방, 경찰, 군부대, 의료기관 등이 참여해 구조·복

훈련에 참석한 유희태 완주군수는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이 이원 생중계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산 사태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이 빈번 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실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토론 훈련에서는 재난 초기 상황 전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

/완주=김명곤기자

#### 순창군, 국민신문고 대체 '새올전자민원창구' 열어

남원시, 현장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국민신문고'

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용·채무 부담 상담이 함께 이뤄질 예

권익위원회와 협업기관 관계자들이 증은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고, 복잡하

#### 민원 공백 방지 한시적 운영 국민신문고 복구 시점까지

시스템 장애에 따라 군민들의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올전자민 원창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국 민원처리를 위해 군민 여러분의 많은 민신문고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민원 접수 및 처리에 공백이 생

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올전자민원창구는 순창군청 새올 전자민원창구를 검색해 이용할 수 있 순창군이 최근 발생한 국민신문고 으며, 운영은 국민신문고 복구 시점까 지 지속될 예정이다.

> 군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시스템 장애로 군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민원 서비스의 공백 없이 신속하고 안전한 이용을 바란다"고 전했다.

> > /순창=박지헌 기자

#### 완주군, 어린이집 통학차량 집중 점검

####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으로 하반기 차량 합동 안전점검을 하게 점검했다. 실시했다.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통학차량 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 다.

이번 점검에는 관내 27개 어린이집

에서 운행 중인 통학차량 28대가 참 여했으며, 점검반은 △어린이보호 표 완주군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길 지 및 정지표시 장치 작동 여부 △하 차 확인 장치 작동 여부 △소화기 등 군은 최근 완주군청 문화예술회관 안전장비 비치 여부 △운전자·동승보 주변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대상 호자 안전교육 이행 여부 등을 세밀

특히 정지표지판 작동과 하차확인 이번 점검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장치는 교통사고 예방의 핵심 장치 로 미작동 차량에 대해 현장에서 즉 시 개선을 요청하고 중대한 법규 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 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 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기자

#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완주군이 관내 아동돌봄기관 5곳을 대상 으로 기관별 4회기씩 총 20회에 걸친 '동물

동물교감 활동 아동 정서 지원

완주군 아동<u>돌</u>봄기관

교감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완주군 교육발전특구 사업비로 추진되며, 지역 아동들이 강아지 와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향 상을 도모하도록 기획됐다.

특히 기전대학교 반려동물학과 학생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참여해, 강아지를 매개로 한 체험활동과 감정교류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강아지와의 친밀감 형성 △기초 돌봄 체험 △감정 표현 놀이 △공 감·책임감 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 아동들이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자연 스럽게 마음을 열고 긍정적인 정서를 회복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아 동들에게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지자체-돌봄기관이 협력하는 완주형 지역 연계 모델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동물과의 교감은 아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을 키워주는 소중한 경험"이라며, "앞으로도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통해 아이 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완주를 만들 어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 남원시, 오늘부터 2025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 인터넷 · 전화조사 사전 시행 미응답 가구 방문 조사 병행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오늘부터 오 조사'를 실시한다.

며,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가구 및 외 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이

하기 위한 문항들로 총 55개의 항목을 응답하는 것은 계속할 수 있다. 조사할 예정이다.

사전 조사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22 든 내용과 개인정보는 통계법에 따라 는 11월 18일까지 '2025년 인구주택총 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 모바일, QR코 철저히 보호되니 안심하고 답변해 주 드, 전화를 통한 비대면 방식의 스마트 시기 바라며, 인터넷·전화 조사에 적극 이번 조사는 관내 전체 가구 중 표본 조사로 먼저 응답할 수 있으며, 인터넷 20% 해당하는 12,544개 가구 내·외국 조사 등을 완료하지 못한 가구는 11월 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당부 인과 이들이 사는 거처가 조사 대상이 1일부터 18일까지 조사원이 직접 방문 했다.

국인 등 정책 수요와 사회변화를 측정 기간에도 인터넷 등 스마트 방식으로

남원시 관계자는 "조사 시 응답한 모 적인 참여와 조사원 방문 시 적극 협조

/남원=정하복 기자



#### 장수군,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성황리 열려

장수군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와글 와글 시장가요제'가 지난 20일 장수시장 특 설무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훈식 장수군수, 최한주 장수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조방희 장수시 장상인회장, 복태만 전북상인연합회장을 비롯해 관내 기관·단체장과 지역주민 500 여 명이 함께하며 성황을 이뤘다.

행사는 개그맨 황기순의 사회로 유쾌하 게 진행됐으며, 본선에 오른 9명의 참가자 들이 열띤 무대를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었 다.

또한 장수군의 아들이자 홍보대사인 최 재명, 미스김, 트윈걸스, 정연호 등 초청가 수들의 신나는 공연과 함께 행운권 추첨이 진행돼 장수시장을 찾은 군민과 상인 모두 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이번 시장가요제를 통해 장수시장이 활력과 웃음이 넘치는 공 간으로 다시 한 번 자리매김했다"며 "앞으 로도 군민과 상인이 함께 성장하는 전통시 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 진안군, 찿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3차 진료 실시

진안군과 백운농협은 21일 백운면 행정 복지센터에서 백운면과 성수면 지역 주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찾아가는 농 촌 왕진버스' 사업 3차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특별 자치도, 진안군, 농협중앙회가 공동 주최하 고 각 지역 농협이 주관해 추진됐다.

검진 대상은 주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 는 고령 농업인 등 지역 주민이며, 진료과 목은 원광대학교 전주한방병원의 한방진 료, 아이오바이오 치과전문기업의 구강검 사, 더스토리안경원의 시력 측정과 돋보기 지원으로 구성됐다.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 은 "한방진료, 구강검진, 시력 측정을 한 번 에 받을 수 있어 매우 편리했고, 전문가의 세심한 상담 덕분에 건강 관리에 큰 도움 이 됐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번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의 료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농촌 주민들에 게 필수적인 진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 역 건강 증진에 크게 이바지했다. 진안군과 지역 농협은 앞으로도 협력해 주민들의 의 료 복지 향상에 힘쓸 계획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 장수군 풀뿌리 교육지원센터. '일곱별 어울림 한마당' 행사

장수군 풀뿌리교육지원센터는 지난 18일 계남초등학교 강당에서 관내 7개 초등학 교(번암초, 동화분교, 수남초, 산서초, 천천 초, 계남초, 계북초) 학생과 학부모 등 150 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곱별 어울림 한 마당'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작은 학교들이 단절되지 않 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교육공동체를 조성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학생들의 협동심 과 사회성 향상은 물론 학부모 간 교류 확 대를 통해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기 반을 다지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번 행사는 학교 간 교류행사를 넘어, 지 역사회 전체가 함께 참여하고 교육의 가치 를 공유하는 공동체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작은 학교의 성장은 곧 지역의 미래 경쟁력"이라며 "아이들이 마을에서 배우고 자라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 겠다"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 진안군, 반다비 체육센터 준공

#### 진안군 최대 체육공간 탄생 연면적 3,319.16㎡ 규모

진안군은 21일 오후 진안 반다비 체 육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진안군 최대 규모 의 실내 체육관으로 장애인과 비장애 인이 함께 어울리는 통합형 생활체육 공간이다. 2021년 착공해 4년여간 총사 업비 132억 원(국비 40억 원, 도비 37.5 억 원, 군비 54.5억 원)이 투입됐다.

'반다비'는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마스코트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계층 과 장애를 넘어 모두가 함께 나아가자 는 굳은 의지와 화합의 상징을 담고 있 다.

준공식에는 전춘성 진안군수를 비롯 한 체육회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센터 개관을 축하했다.

센터는 연면적 3,319.16㎡ 규모로 체 육관, 수중운동실, 체력단련실, VR체험



진안군은 21일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실, 사무공간 등으로 구성됐다.

배리어프리(barrier-free) 설계와 쾌적 한 실내 환경을 갖춰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체육 공간으로 조성됐다.

주 시설인 체육관은 1,552.5㎡ 규모로

△배드민턴 12코트 △농구 1코트 △좌 특히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고려한 식배구 8코트 △보치아 10코트 △골볼 4코트 등을 운영할 수 있어, 장애인 체 육은 물론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대 회 개최가 가능한 다목적 시설로 활용 된다.

/진안=전길빈 기자

# 임실군, 농촌지역 식품 사막화 해소에 앞장

#### 찾아가는이동장터차량제막식 임실시니어클럽과 업무 협약체결

임실군이 농촌주민의 생활편의를 높 이고 이동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 마 을을 직접 방문해 생필품을 판매하는 내 집 앞 이동장터 사업을 위한 이동장 터 차량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동장터 사업은 농촌 마을의 소매점 감소로 인해 식료품과 생필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주민들의 불 편을 해소하고 농촌지역의 '식품 사막 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돌파구로 지난 3월 농림축산식품부의 '가가호호 이동 장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군은 2021년부터 추진 중인 임실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를 활용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동장터 차량 구입 및 구조변경을 완료해 지난 20일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동장터 운영은 임실시니어클럽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하며, 군과 임실시니 어클럽은 사업 기획 단계부터 긴밀하 게 협의하며 안정적 운영체계와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힘써왔다.

또한,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 킹하고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내 하나로마트 수준의 가격경쟁력을 확보 하는 등 내실 있는 운영 준비를 마쳤다. 이날 행사에는 심 민 군수를 비롯해 사업 수행기관인 임실시니어클럽 관계 자, 임실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주민 위 원, 군 의회 의원 등이 참석해 업무 협 약 체결과 차량 제막식, 차량 관람을 함 께 진행했다.

수행기관인 임실시니어클럽은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임실읍 이도리와 성 가리, 두곡리를 제외한 임실읍 41개 마 을을 대상으로 남은 두 달 동안 시범운 영하고 부족한 사항은 보완하여 2026

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0% 넘 어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임실군의 상 황을 고려해, 더 많은 주민들에게 서비 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6월 전북특별자 치도에서 진행한'2026년 전북형 이동 장터 시범사업'에도 선정됐다.

이를 통해 임실읍뿐만 아니라 11개면 교통취약지역 주민들까지 서비스 범위 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심 민 군수는 "찾아가는 임실 이동장 터 사업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인 임실시니어클럽 관계자들의 노력을 당부드린다"며 "수 익성보다는 공익성을 우선시할 수 있 는 시니어클럽의 강점을 살려 타 지역 에서 볼 수 없었던 성공적인 모델로 구 축될 수 있도록 이동장터 사업에 지원 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 제로그램-진안군, 코리아 백패커스 데이 개최

#### 전국 백패커 600명 집결

진안군은 오는 25일부터 26일까 지 이틀간 '2025 코리아 백패커스 데이 & 워크 어라운드 생태호수'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아웃 도어 브랜드 제로그램의 주최·주관 으로 전체적인 행사 기획·운영 및 콘텐츠 구성을 이끌어낸다.

진안군은 주천생태공원, 진안읍 가막천 주변 등 장소 제공 및 일부 트레킹 프로그램을 주최하고, 지역 특산품 및 먹거리 시식·판매, 기념 품 등을 후원한다.

'코리아 백패커스 데이'는 2015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7회째를 맞이 한 국내 대표 백패킹 축제로 해마 다 500~600명의 백패커들이 참여 해 아웃도어 문화를 나누고 교류하 는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진 행요원을 포함해 약 600명이 참여 할 예정이다.

올해는 진안의 천혜의 자연환경 을 배경으로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 이 준비됐다. △구봉산 정상 코스 △운일암반일암 명도봉 코스 등 트 레킹 프로그램을 비롯해 △운일암 반일암 계곡 볼더링 체험 △주천면



하가막 농촌체험마을 래프팅 체험 등 색다른 아웃도어 활동이 마련돼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행사장에서는 △아웃도어 지식 나눔 프로그램 '쉐어그램' △아티스 트 공연 △GPS 보물찾기 △모닝 필 라테스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펼쳐 질 예정이다. 현장에는 국내 주요 아웃도어 브랜드 부스와 함께 △진 안의 대표 트레일 '진안고원길' △ '2026~2027 진안방문의 해' 홍보 관 △진안로컬푸드 직매장의 바비 큐존 △지역 식음료업체 참여 부스 등이 운영되어 진안의 청정 자연과 지역 먹거리, 로컬 브랜드를 함께 알리는 장이 될 전망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 임실군의회, 울산 동구의회와 상생 협력 방안 논의

#### *"*지방소멸 시대 극복"

임실군의회(의장 장종민)는 지난 16 일, 하반기 의정 연수 기간 중 울산광 역시 동구의회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갖고 상호 교류와 지역 협력 방안에 다. 대해 논의했다.

담회에서는 장종민 의장을 비롯한 양 주영 부의장, 김종규 운영행정위원장 과, 의회 직원이 참석했으며, 동구의회 에서는 박경옥 동구의회 의장을 비롯 한 의원 7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울산 동구의 회 의원들이 임실군의회를 공식 방문

한 것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루어졌 으며,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사례와 지 역 관광자원 활성 방안 벤치마킹, 영· 호남 지방 의회 간 교류 등 다양한 주 제로 두 지역 간 발전 방향을 모색했

장종민 의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울산 동구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간 도시와 농촌이 가진 장점을 함께 살리 는 협력은 지방소멸 시대를 극복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동 구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실질적인 지역 상생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 장수군, 사과 본고장 일본 아오모리현 기술교류 추진

#### 장수군, 일본 아오모리현 방문 사과산업기술유통체계 벤치마킹

장수군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일 본 아오모리현을 방문해 사과 산업의 기후변화 대응 기술과 선진 유통체계 를 벤치마킹했다고 밝혔다.

생산자협회 장수지부 관계자 등 29명 이 참여해 장수사과 산업의 미래 전략 을 모색하고자 현지를 찾았다.

사과협회, 과수농가 등을 직접 찾아 △ 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배 기술 방향 △ 병해충 방제 및 왜화재배 기술 △유통・ 경매 시스템 △지방정부의 농가 지원 장 중심의 연수를 진행했다.

방문단은 히로사키 농산물 경매장과 후루사토 센터, 아오모리 사과협회 등 이번 연수에는 행정, 의회, 전국사과 을 차례로 찾아 일본 사과의 생선에서 소비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의 관리체 계를 현장에서 확인했다.

방문단은 일본 내 최대 사과 생산지 생 과원을 방문해 신품종 육종과 묘목 업 발전에 접목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로 꼽히는 아오모리현의 농업시험장, 관리 기술, 스마트 재배시스템 적용사 나갈 계획이다.

이어 이타야나기 정청을 방문해 지방 정부의 사과 산업 육성정책과 민관 협 력 모델을 공유하며, 장수군의 과수 정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기 위해 현 책 추진 방향에 적용 가능한 개선방안 을 논의했다.

특히 방문단은 일본 내 사과 산업을 지원하는 지방정부와 민간 단체의 사 과 관련 정책과 농가 지원사업을 직접 살펴보며,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 응 품종 육성, 스마트 재배 기술 도입, 또한 하라다 종묘 회사와 나리타 선 품질 관리 체계 개선 등 장수군 사과 산

/장수=최진수 기자

#### 진안군,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진안군은 21일 오후 군청 강당에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 다.

식 확립과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조성 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공무원과 공무 직,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의는 보건복지부 소속 한국장애인 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개발원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전문 정 경희 강사가 진행했으며, '삶을 도전하 는 사람으로'라는 주제로 장애에 대한 변화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사회의 중 요성을 강조했다.

진안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장애를 바라보는 인식을 새 롭게 하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없는 이번 교육은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기

>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장 애에 대한 다양성을 존중하고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도

한편, 진안군은 2020년부터 매년 사 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꾸준히 실 시하고 있으며, 대면 교육에 참여하지 육을 이수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진안=전길빈 기자

### 무주군, 3소(所)·3색(色) 가을 전시 풍성

#### '인두화'·'화공마레'·'인형전' 개최

무주군이 다양한 전시회를 열어 가을 방문객들을 손짓하고 있다. 무주최북 미술관에서는 오는 30일까지 "빛과 나 무의 대화-무주in 인두화 展"이 개최된 다. 무주in 인두작가모임에서 주최·주 관하는 이 전시회에서는 불에 달군 인 두로 나무 등의 표면을 태워서 자연과 사람, 시간과 감정이 만나는 순간을 표 현한 인두화(우드버닝) 작품과 만날 수 있다.

주침공간(B1)에서는 11월 9일까지 "화 공마레...꿈을 그리다" 전시회가 열린다.

이 전시는 지역 아동들이 자연과 일 상에서 느낀 감정과 상상을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들로 구성되며, 지역 내 40 전(muju memory)"을 관람할 수 있다.



무주상상반디숲 내 생활문화센터 마 여명의 어린이들이 창의적 시각과 예 술적 감수성을 담아서 그린 작품 50여 점을 감상할 수 있다.

12월 2일까지는 무주예술창작스튜디 오 칠연미술관에서 "테마가 있는 인형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전 시회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테마가 있 는 인형전(muju memory)"은 무주로 귀촌한 안영옥 작가가 손수 만든 '나무', '부엉이', '사슴' 등의 인형 30여 점을 선 보인다. /무주=최의호 기자

#### 임실군,제3차기후위기적응대책수립최종보고

임실군이 지난 17일 군청 농민교육 기후 취약성 분석, 상위계획 검토 등을 3차 임실군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수립 해 나갈 방침이다. 용역 최종 보고 및 주민설명회'를 개 최했다.

기후 위기 적응 대책으로 기후 위기 거쳐, 오는 11월 환경부와 전북특별자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치도에 제3차 임실군 기후 위기 적응 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이번 적응 대책은 모두가 안심하는 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다.

무원 설문조사 2회, 관련 부서 간담회 2회 및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

장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 주민, 반영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이행 방 용역 수행기관 및 관련 부서 담당 공 안을 마련했으며, 매년 세부 사업 점검 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과 보완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

또한, 최종 보고 및 주민설명회를 통 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 임실군 탄 이번 최종 보고회는 제3차 임실군 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의결을 대책'을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우리 모두가 함께 힘 기후 대응 공동체 임실을 비전으로 물 을 모아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 관리 등 6개 부문, 15개 추진 전략, 46 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탄소중립 목 표 달성을 위해 행정적인 노력뿐만 아 군은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군민 및 공 니라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 진안군 정천고인돌 축제 개최 여의곡 유적 기억 잇는 화합 한마당

진안군 정천면은 지난 18일~19일까지 2일간 여의곡 유적의 기억을 잇는 화합의 한마당 행 사인 '정천 고인돌'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고 밝혔다.

이번 축제에는 면민을 비롯해 향우, 관광객 등 700여명이 참석해 축제를 즐겼다.

이번 축제는 2019년 면민의 날에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유적을 공부하고 상석 이동 퍼포 먼스를 펼친 것이 시작이다. 그 뜻이 이어져 오 늘날 면민과 향우, 인근 수몰마을 주민들이 하 나 되어 즐기는 화합의 축제로 발전한 것이다.

행사 당일에는 마을별 이름으로 당시 묻어 두었던 약술을 꺼내 나누는 행사가 큰 인기를 얻기도 했다.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은 "정천고인돌 축제가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역사와 문화유 산을 계승하고 주민 공동체를 강화하는 희망 의 약속이 되는 특별한 축제로 이어져가길 기 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진안=전길빈 기자



#### 태권도원운영관리 노동조합, 무주 산간마을 LED등 교체 봉사

태권도원운영관리 노동조합(위원장 최희돈) 은 21일 산간마을 부남면 상굴암, 굴암신대마 을을 찾아 어두운 골목에 LED태양벽부등 설치 와 생활주거공간 14가구를 대상으로 노후형광 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재능봉사를 통해 지 역민들의 불편사항들을 해결해주는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했다.

(사)무주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강우)와 지난 8월경 자원봉사활동 MOU업무 협약을 맺 고 기회가 주어지는대로 조합원들과 함께 지 역주민들의 불편해결을 위한 재능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9월 1일을 시작으로 적상면 길왕마을 어두운 골목 LED태양광 벽부등 설치를 통해 산간마을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많은 호 응과 봉사자들을 반갑게 맞아주는 주민들과 소통하고 함께 더불어 보람을 느낄수 있는 봉 사활동을 다방면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무주=최의호 기자

# 익산의 젊은 소리꾼 이다은 명창, 전국대회서 대통령상

#### 송만갑판소리 대회서 대상

창(33)이 다시 한 번 판소리의 진 상금 2,000만 원, 부상으로는 구례 가를 입증하며 전국에 익산의 이 군 제1호 명장 죽호바람 김주용씨 름을 알렸다.

명창은 최근 열린 '제29회 송만갑 이수자인 그는 '대한민국 인재상 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갖추고 있으며, 현재는 사단법인 안았다.

갑 선생의 예술혼을 기리기 위해 단장, 원광대학교 출강 등 교육·공 매년 개최되는 전국 단위 국악 경 연활동을 통해 지역에서 소리문화 연으로, 전통예술의 보존과 계승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을 위한 권위 있는 무대로 꼽힌다.

이다은 명창은 탄탄한 기량과 깊은 소리로 심사위원단의 압도적 익산의 젊은 소리꾼 이다은 명 인 호평을 받았으며, 상장과 함께 의 부채를 받았다.

21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다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춘향가 판소리·고수대회'에서 명창부 대 (대통령상)' 등 각종 수상 경력을 한국판소리보존회 익산지부장을 이 대회는 구례 출신 국창 송만 맡고 있다. 익산어린이판소리합창

/익산=최준호 기자



### 위아원 전북지역연합회, 헌혈 캠페인 진행…총891명 참여

#### '2025 위아레드 헌혈 캠페인' 3년째 총 4500명 누적 헌혈

명절 연휴로 혈액 수급이 빨간불 이 켜진 시즌, 전북 청년들이 피보 만 원 상당의 헌혈 기부권을 달성했 다 진한 나눔으로 희망의 맥박을 잇 다. 고 있다.

청년자원봉사단 위아원(We Are 로 혈액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북 위 One) 전북지역연합회는 지난 7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진행된 '2025 위아레드 하반기 헌혈 캠페 인'에서 총 891명이 헌혈에 참여해

위기 속 생명 수호의 선두에 섰다.

이번 하반기 캠페인은 800명 목표 했으며, 3년째 이어진 꾸준한 참여 로 총 4500명의 누적 헌혈과 4500

전북혈액원 관계자는 "전국적으 아레드의 헌혈 캠페인이 큰 힘이 되 고 있다"며 "헌혈 문화 확산에 앞장 서는 위아원의 지속적인 참여에 감 사한다"고 밝혔다.



#### 완주군고령군 재향군인회, 영호남 화합 교류행사

완주군재향군인회와 고령군재 향군인회는 최근 완주군 일대에서

간 우의를 다지고, 안보의식을 고 통해 힐링의 시간을 가지며 친목 취하며,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을 확 을 도모했다. 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30여 년을 이어온 이번 행사는 양 지역 향군 회태 군수가 참석해 노고를 격려 간의 우정을 넘어 지역 간 화합과 하고 재향군인의 역할과 중요성에 상생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대해 강조했다. 계기가 됐다.

참가자들은 완주군의 대표 문화 유산인 경천면 화암사를 탐방하 제73차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 및 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 영호남 친선교류행사를 개최했다. 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싱그랭이 이번 행사는 양 지역 향군회원 마을에서는 석부작 만들기 체험을

이후 열린 공식 기념식에는 유

/완주=김명곤 기자

### (사)한국나눔연맹 이웃돕기 물품 기탁



#### 한국나눔연맹,김제시에 7,370만원상당물품기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사)한국 다. 나눔연맹(중앙총재 안천웅)이 21 기부했다고 밝혔다.

전달된 물품은 △백미 10kg, 를 유지하고 있다. 1,000포 △라면(12개입), 1,000박 달되어 기초생활 안정과 영양 개 제공하고 있다. 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

(사)한국나눔연맹은 전국적으로 일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위해 총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 금7,37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비영리 단 체로 김제시와는 오랜 협력 관계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최초로 김 스 △건빵(3kg), 1,000개로 구성돼 제시에 개소한 '천사 무료급식소' 있으며, 물품은 관내 홀몸 어르신 를 통해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 과 저소득 가정 등 취약계층에 전 들에게 정기적으로 따뜻한 식사를

/김제=온봉기 기자



#### 군산 소룡동, '사랑愛 짜장나눔 행사' 진행

군산 소룡동(동장 이건실)이 21일 오전 11 시부터 진행한 소룡동 행정복지센터 앞 공영 주차장에서 '사랑愛 짜장나눔 행사'를 성황리 에 마쳤다.

소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2012 년부터 열려온 '사랑愛 짜장나눔 행사'는 소룡 동 사랑나눔짜장봉사회가 재능기부로 시작하 여 10년 넘게 지속되어온 지역 대표 나눔 봉 사활동이다.

이번 행사에는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단, 부 녀회 등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자원봉사자들 도 동참해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군산시장, 시의 회 의장, 지역구 도·시의원 등 주요 내빈과 주 민 400여 명이 참석해 이웃간의 나눔을 생각 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건실 소룡동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 사활동을 통해 소룡동의 따뜻한 공동체 문화 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완주 봉동읍지사협, 복지사각지대 해소 홍보 캠페인 실시

완주군 봉동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0일 장날을 맞아 생강골시장에서 복지사각 지대 해소를 위한 집중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동절기를 앞두고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 의 관심을 유도하고, 지역의 복지서비스를 홍 보하고자 마련됐다.

협의체 위원들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안내 문과 함께 홍보 물품을 전달하며, 본인이 어 려운 상황이거나 주변에 어려운 이웃 발견 시 봉동읍 행정복지센터에 연계해 적절한 지원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 했다.

봉동읍은 발굴된 위기가구에 보건·복지 상 담을 통해 필요한 자원을 연계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 해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완주=김명곤 기자

# 가을등산 필수 준비물

즐거운 가을 여행이 아름다운추억으로 남길 수 있도록 ! 준비물을 꼼꼼 하게 확인 하세요!



당일방문 지역과 산악날씨 체크하기



등산화 착용 -미끄럼방지, 발목 보호-



물과 간식 - 칼로리 소모 방지-



돗자리, 방석

-야생 진드기 방지-



여분 배터리, 응급랜턴 -응급상황대비-



겉옷 챙기기

-체온유지-

〈一事一言〉



#### 북한 핵위협 대응하는 무시무시한 우리 무기체계(3)

조성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둘째는 사린(GB), VX와 같은 고 휘발성 신경작용제를 장착한 집 속탄을 탑재할 경우 더 큰 살상효 과를 발휘한다. M270 다연장로켓 발사시스템(MLRS)에 탑재되는 집속탄(M26)은 탄두중량 156kg 에 자탄 개수가 644발이며, 사거 리를 연장하기 위해 추진체 무게 를 늘리고 자탄을 줄인 M26A1은 자산 개수가 518개다. ATACMS 미사일(블록 1A)의 집속탄 모델 인 MGM-140A의 경우 탄두중량 이 560kg일 때 0.58kg인 자탄의 개수는 950개이며, 사거리 연장 을 위해 탄두중량을 160kg로 줄 이게 되면 자탄은 275발 탑재할 수 있다.

독성 신경가스의 살상 범위는 가스의 종류, 살포량, 기상 조건 (바람, 온도), 살포 방식(에어로 졸, 증기) 및 지형 등 여러 요인 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사린가스 1.2kg을 살포하면 반경 33m 지 역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데이터 가 있으며, 액체 노출 땐 적은 양 (1~10mL)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 다. 군사적 상황에서 방호조치가 없는 경우, 수백 미터에서 수 킬 로미터 범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량살포 때는 수십 km 까지 확산될 수 있다. VX는 사린 가스보다도 100배 가량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TACMS(블록 1A)를 기준으로 집속탄을 장착한 현무-5의 살상 력을 계산해 보자. 현무-5의 공 식 사거리는 300km로 탄도중량 을 줄이지 않아도 북한 전역을 커 버할 수 있다. 집속탄에 8000kg의 자탄을 탑재한다고 가정하자. 자 탄 1개의 무게를 2kg라고 할 때, 최대 4000개의 자탄을 탑재할 수 있다. 고폭약의 집속탄을 탑재한 현무-5로도 유효살상 범위는 축 구장 면적의 700배를 넘는다. 이 를 근거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에 투하된 원폭의 사망률 데이터 를 기준으로, 화산-31형 핵탄두 의 예상살상력과 그에 상응한 현 무-5의 개수를 추정하면 아래와

현무-5 미사일은 북한이 핵이 나 미사일을 사용해 공격해 올 경 우에 대응한 우리 군의 핵심 대량 응징보복 체계다. 현무-5 미사일 의 개발 목적은 고위력 재래식 벙 커버스터 탄두를 탑재하여 북한 의 지하 지휘시설을 파괴하는 데 있다. 하지만 현무-5의 8~9톤급 탄두는 재래식 무기로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여기에 집속탄 을 탑재하여 사용할 경우 광범위 한 지역에 걸쳐 대량살상을 초래 할 파괴력을 갖고 있다.

한국은 집속탄금지협약(CCM) 에 가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집속탄의 사용과 개발, 생산, 비 축 및 이전에 국제법적 제약이 없 다. 현재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 시아 등도 CCM에 가입하지 않았 다. 고폭약을 장착할 경우엔 아무 런 법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풍산 과 KDI 등 방산업체에서 집속탄 을 생산하고 있다. 다만, 집속탄 은 국제적 논란이 있어 우리 정부 는 자폭장치가 있는 탄만 생산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학작용제를 장착한 집속탄의 생산 및 보유는 국제법 위반의 소 지가 있다. 화학무기사용금지협

약(CWC)은 화학무기를 개발, 생 산,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데, 한국은 1997년에 이 협약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CWC 에 가입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 나긴 하지만, 국제사회의 책임 있 는 평화중견국가로서 한국은 마 땅히 국제규범을 지켜야 할 의무 가 있다.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자처하 고 있지만, 아직은 선제 핵공격능 력을 갖지 않은 최소억제력의 수 준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탄두 수 가 100개를 넘어 제2타격능력을 갖추고,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전 에 배치하고 핵선제사용 독트린 을 채택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진 다. 이 경우 평화통일은커녕 평화 공존조차 힘들어진다.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내세운 북한이 핵무 기를 앞세워 우리에게 강압외교 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 우에 대비해 우리는 두 가지 대책 을 마련해 놓고 있어야 한다.

하나는 「한미 워싱턴선언」 (2023.4.)을 보완해 북한의 핵위 협으로 데프콘-3에서 데프콘-2 로 격상해야 하는 안보 위기상황 이 오면 주한미군이 전술핵무기 를 한반도에 긴급 배치하고 이를 위해 평시에 한미 모의훈련을 실 시한다고 공약해 놓을 필요가 있 다. 이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로 우리를 강압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한국이 평상시에 이중용도기술을 활용해 화학작 용제 생산능력을 갖춰놓고 있다 가 북한 핵위협으로 데프콘-2로

격상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CWC 를 탈퇴해 본격적으로 화학작용 제가 장착된 집속탄을 생산해 대 북 핵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 때 각종 경제·기술적, 외교적 제 재를 감수하더라도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이 국익에 더 도움이 된 다는 국민적 동의가 뒷받침되어 야 하다.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 역에서 군비경쟁이 격화되고 있 다. 브레이크 없는 무한 군비경쟁 은 안보딜레마를 낳고 있으며 한 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는 점점 멀 어지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 볕정책 3원칙(무력도발 불용, 흡 수통일 포기, 화해·협력 추진)에 서 첫 번째가 '무력도발 불용'이 다. 우리가 핵무기 보유는 못하더 라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로 흔들 린 한반도 군사력 균형을 회복하 고 평화공존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무-5를 비롯한 고위력 재 래식전력의 태세 구축은 불가피 하다.〈끝〉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순창군이 여는 농촌의 미래, 기본소득 답이 될까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이 스스로 의 생존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순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 범사업'에 최종 선정돼 내년부터 모든 군민에게 매달 15만 원씩, 2년간 총 360 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된 것이 다. 전국 49개 군 단위 자치단체가 경쟁 한 가운데 최종 7곳만이 선정됐고, 전북 에서는 순창군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 다. 이번 선정은 인구 감소로 존립 자체 가 위협받는 농촌 지역이 국가 균형발전 의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순창군에는 내년부터 2년간 총 973억 원이 지역경제에 투입된다. 군민 2만7 천여 명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금액이 기에 이 돈은 곧바로 지역 상권과 생활 경제로 흘러 들어간다. 소비가 늘어나 면 자영업과 소상공인 매출이 회복되고 다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기대된다. 순창군이 추진 중인 '모두의 햇빛 프로젝트' 같은 재투자 모델과 연 계된다면 단기적 경기부양을 넘어 지속 가능한 경제자립의 토대를 만들 수 있 을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선정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점이 다. 순창군은 지난 5월부터 군수 주재 실무회의를 통해 준비에 착수하고 전국 최초로 전담조직을 신설했으며 관련 조 례 제정과 전문가 자문, 주민 의견 수렴 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생애주 기별 보편 복지정책을 이미 실행해 온 행정적 기반도 이번 성과의 밑거름이 됐

농어촌 기본소득은 결국 농촌의 존속 가능성을 묻는 실험이다. 젊은 세대의 이탈로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는 농촌 현 실에서, 안정적인 소득 보장은 정착과 귀농을 유도하는 최소한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또한 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비 촉 진에 머물지 않고 지역 내 순환경제로 이어지려면 자립형 사업 구조와 생산 인 프라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 순창군이 계획한 생활인프라 개선, 사회서비스 확 충,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그 방향을 잘 짚고 있다.

그러나 실험은 어디까지나 검증을 전 제로 한다. 2년간의 시범사업이 끝난 뒤 어떤 변화가 실제로 나타났는지를 면밀 히 분석해야 한다. 단기적인 소비 증대 에 그친다면 지속성은 담보되지 않는다. 행정의 투명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그리고 군민 체감 효과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가 필수적이다. 또한 '기본소득이 일자리 의욕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우려 에 대해서도 현실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 다. 복지와 노동의 선순환이 함께 작동 할 때만이 지역 재생이 가능하다.

순창군의 이번 도전은 단순한 복지정 책이 아니다. 인구소멸 위기 속에서도 '모든 군민이 함께 사는 공동체'라는 가 치를 현실로 만들려는 실험이다. 중앙정 부는 이 실험의 성과를 주의 깊게 관찰 하고 성공 사례가 된다면 전국 농촌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순창군 역시 첫 사례라는 상징성 에 걸맞게 행정의 정교함과 투명성을 높 여야 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결국 '사 람이 남는 지역'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 다. 순창이 그 가능성을 증명한다면 이 는 단 한 지역의 성취를 넘어 대한민국 농촌 재생의 새로운 길잡이가 될 것이



흥덕 당간지주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유적건조물, 불교, 당간 -지정일 - 1973년 6월 23일 -시대 - 고려시대 -소재지- 고창군 흥덕면 교운리 126



2011년 10월01일 회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일간]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전주지사 010-9845-4113 부안지국 010-7247-394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남원지국 010-2285-3987 중앙지사 010-9678-4271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송천지시- 010-5242-3694

·구독료: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경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오늘의시

#### 기다림이 지는 밤 / 박남준

눈을 감았습니다. 당신과의 만남이 첫 만남이어서가 아닙니 다.

당신과의 이별이 첫 이별이어서도 아니고요 빈방에 눅눅한 적막이 흐르고

시인 약력 : 1957년 전남 영광 출생. 전주대 영 문학과를 졸업했다. 1984년 '시인'지에 '할매는 꽃신 신고 사랑노래 부르다가'를 발표하며 등단

꿈도 없이 무릎 꿇었습니다. 이제는 잊자고 잊었었지요. 무너지며 무너지며 어깨 들먹였었지요. 산 숲 가득 바람 불고 눈물 같은 비 젖어오는데 뚝뚝감꽃이지는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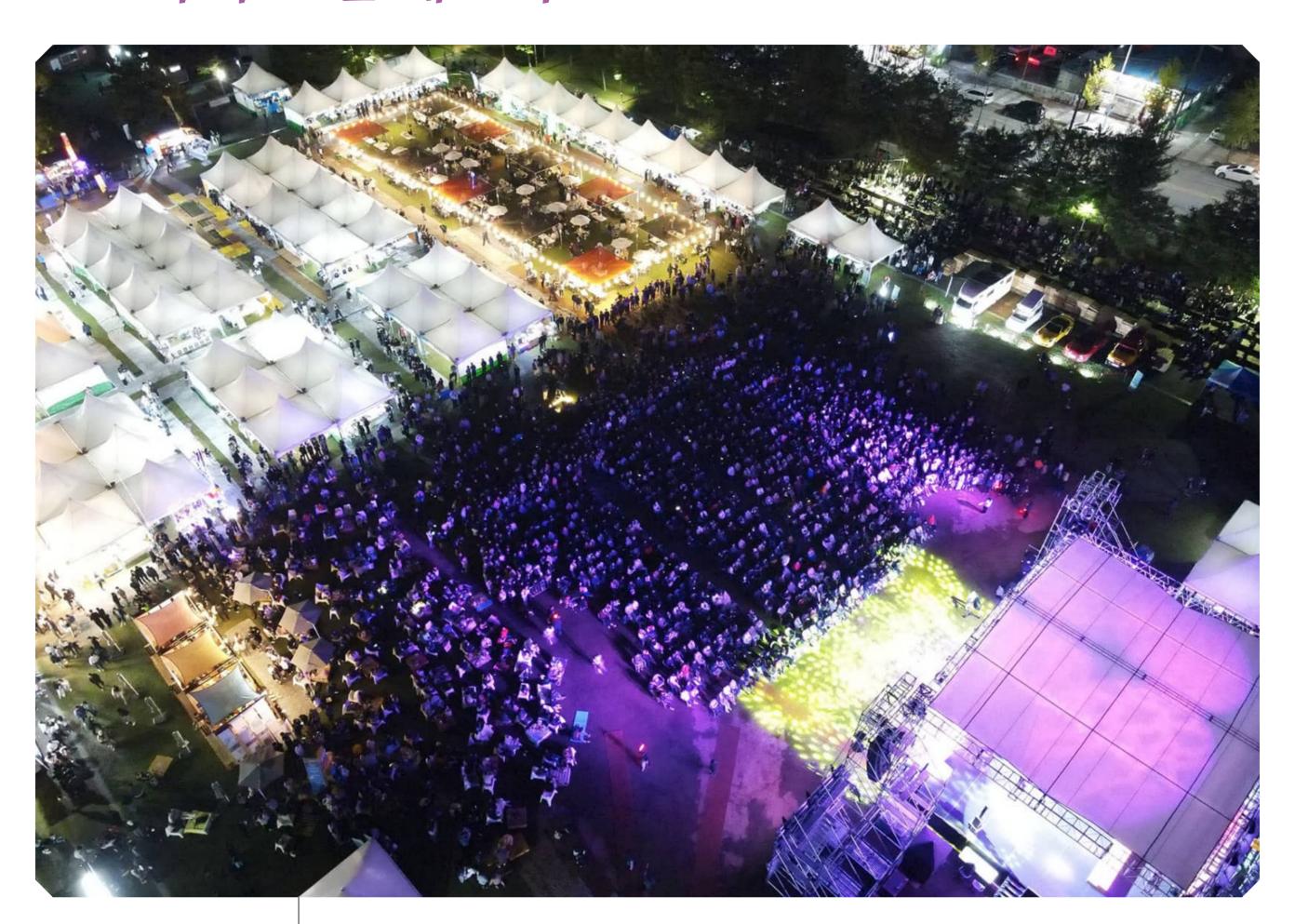
했다. 2003년 전주 모악산방을 떠나 거처를 지 상과 거창 평화인권문학상, 천상병 시문학상 등

멀리 호랑지빠귀 소리가 아득해져 갔습니다. 이제 사위어질지요. 타고남은 재로 다 타고남은 재로

을 받았다. '세상의 길가에 나무가 되어' '풀여치 리산 하동군 악양면으로 옮겼다. 전주시 예술가 의 노래'등의 시집과 '쓸쓸한 날의 여행' '작고 가벼워질 때까지' 등 산문집을 남겼다.



# '드라이브 인 페스타' 3일간 대성황속성공적 마무리



#### Drive in FESTA

완주문화재단(이사장 유희태)의 지역 상 생형 문화축제 '2025 드라이브 인 페스 타'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완 주 둔산공원 일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 다

일상에서 떠나는 가장 가까운 여행을 주 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와 지역 주민 등 5만여 명이 참여하 며 완주 대표 문화축제로서의 입지를 확 고히 했다.

이번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특 별자치도, 완주군이 주최하고 지역문화진 흥원, 완주문화재단, 완주문화선도산단 이 공동 주관했다.

〈편집자 주〉

#### 근로자주민 5만 여명 참여…지역 상생 문화축제로 자리매김

#### 첫날부터 뜨거운 호응 ··· 금요일 밤 열기로 물들다

축제 첫날인 17일 오후 3시, 부스 개장과 동시에 많은 시민들이 둔산공원을 찾아 축제 분위기를 달궜다.

주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한 먹거리 부스와 완주 최대 규모의 플리마켓은 개장 직후부터 발길이 이어졌으며, 로컬 특색을 담은 다양한 제품과음식이 방문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오후 6시부터 시작된 페스타 무대에서는 완주 예총 소속 뮤지션들의 '행복완주산단 어울림 콘 서트'가 큰 박수를 받았고, 이어진 EDM DJ 파티 는 젊은 층의 참여를 이끌며 금요일 밤을 뜨겁 게 달궜다.

#### 세대를 아우르는 체험 프로그램 '문전성시'

3일간 진행된 체험 프로그램은 남녀노소 누구 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큰 인기를 끌었다.

△폐차를 예술로 재해석한 오토아트존(라이 브 드로잉쇼) △나만의 방향제 만들기와 자동차 용품을 만나볼 수 있는 드라이빙존 △트렁크 플 리마켓과 푸드트럭으로 구성된 MZ마켓존 △짜 릿한 속도감을 느낄 수 있는 RC카 아드레날린 존 △자동차 에어바운스와 미니극장이 마련된 키즈캠프존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행사 내내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별빛콘서트·근로자기족가요제로감동의피날레** 18일 오후 7시 열린 개막식에서는 산단 기업 근무복을 K-컬처 감성으로 재해석한 근무복 패 션쇼를 시작으로, 완주군 연합합창단의 공연과 유희태 군수의 축사로 축제의 공식 막이 올랐다.

이어진 별빛콘서트무대에서는 송하예, 존박, 크로스오버 그룹 카르디오가 가을 밤을 수놓는 무대를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근로자 가족가요제가 열려 지역 가족과 친구, 동료들이 직접 무대의 주인공이 되었으며, 가수 임창정의 피날레 공연 으로 3일간의 축제는 감동 속에 대미를 장식했 다.

주민과 기업이 함께 만든 진정한 상생의 무대 메인 무대뿐 아니라 Δ행복완주산단 어울림 콘서트 Δ행복 완주산단 라디오 주민DJ Δ완주 플레이리그 E스포츠 대회 등 주민과 기업이 직접 기획·참여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지며, 참여자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참여형 축제의 진수를 보여줬다.

#### 지역 상생 문화<del>축</del>제의 새로운 모델 제시

유희태 완주문화재단 이사장은 "이번 드라이 브 인 페스타는 근로자와 주민이 함께 만들어낸 진정한 지역 상생형 축제였다"며 "일상 속에서 문화적 여유를 즐기고, 가족과 이웃이 함께 어울 리며 완주만의 따뜻한 완주형 문화를 체감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근로자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통과 화합의 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문화축제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